

월드뷰

WORLDVIEW

02

FEBRUARY · 2018

ISSN 2234-3865

기독교 시각으로 올림픽을 바라보다

COVER STORY

평창 올림픽 유치 실무 위원장 박선규 전 차관을 만나다

ISSUE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
올림픽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과 대안
신체활동이 주는 참다운 기쁨
운동경기에 대한 책갈피



우리는 지금 몇 살입니까?

무임(無賃) 가정교회
목회자가 내놓는,
잠언서이자 교회론,
목회론, 인간론

'몇 살입니까?'는 나이를(연대기적 나이), 성에 대한 책임(생식기적 나이)을, 나아가 종교적 나이와 신앙의 나이를, 개인적 나이와 관계적 나이를, 관계의 기초 단위가 되는 가정의 나이를, 나아가 한 몸의 나이를 묻는 질문이다. 통념적인 나이 기준에서 시작하여 온전한 개인의 최소 관계를 이루는 가정과 공동체로까지 질문은 확장되어 나아간다. 온전한 몸을 이루고자 분투하는 목회자의 지혜와 혜안이 담긴 글이다.



Contents

FEBRUARY · 2018



COVER STORY

- 커버스토리
평창 올림픽 유치 실무 위원장 박선규 전 차관을 만나다 8
'더불어 꿈' 17

ISSUE

- 발행인의 글
평창올림픽 기간에 돌아보는 올림픽과 스포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 김승욱 6
대표주관
올림픽의 타락과 종말 | 손봉호 19
기획칼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 | 박선규 22
올림픽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과 대안 | 김현수 25
신체활동이 주는 참다운 기쁨 | 배성민 33
운동경기에 대한 책갈피 | 송인규 38



WORLD VIEW

2018년 2월호 | WORLDVIEW | 통권 212호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월드뷰〉 구독신청계좌 : 국민은행 387201-01-121691 예금주: 세상바로보기

WORLD VIEW



BOOK & CULTURE

칼럼

- 밀양으로 간 벤허 | 남정욱 46
공동체와 예술 | 이용배 50
고통, 빛의 시간 | 최충희 53
삶을 위한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2) | 이우제 56

HUMOR

손봉호의 유머 모음

- “창조의 순서” 18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발행인 김승욱 | 디자인 · 편집간사 곽우정 | 인쇄 상지사 | 제작 (주) 세상바로보기
전화 02-718-8004 | 주소 서울 용산구 이촌로 27가길 5, 103호 (이촌동, 한강르네상스
빌리지 A) 04374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2018 사순절 기념 초대전

위로하
여
그를
말미암고
그로

골
1
: 16

조각가
윤성진이
만든
십자가

2018. 2. 18(Sun) ~ 3. 15(Thu)

서초아트원갤러리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대표주간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편집위원	김정효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철홍	장신대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플러신학교 신약학 박사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배성민	강동대 교수, 고려대 체육교육과 졸업, 고려대 스포츠심리학 박사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전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이경원	SICA(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학원)원장, 하늘소리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이상규	고신대 교수, 개혁신학회 회장, unio cum christo의 편집위원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이우제	백석대학교 교수, 총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정석	전 KBS PD,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편집간사	곽우정	월드뷰 편집간사, 장신대 신대원 졸업



김승욱



손봉호



곽우정



김정효



김철홍



김태황



배성민



송인규



이경원



이상규



이승구



이우제



조영길



한정석

자문위원

김진구 (고신대) 김대인 (이화여대) 김의원 (총신대) 김지원 (백석대) 박동열 (서울대)
 박상은 (안양샘병원)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양승훈 (VIEW) 이인용 (삼성전자)
 이재희 (가천대) 정희영 (총신대) 조성돈 (실천신대) 조성표(경북대) 최용준 (한동대)

평창올림픽 기간에 돌아보는 올림픽과 스포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김승욱 교수 (발행인)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고용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등을 하고 있다.

삼수 끝에 한국의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대회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그리고 동계패럴림픽 대회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피겨스케이팅과 함께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아이스하키 분야에 북미아이스하키 리그(NHL)가 불참을 선언했고, 국가주도 도핑조작 스캔들로 러시아선수단의 출전이 금지되어 평창동계올림픽의 흥행에 염려를 했지만, 95개국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역대 최대였던 2014년 소치올림픽의 88개국에 비하면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참가로 흥행과 평화올림픽임을 과시하려는 정부와 이를 비판하는 야당간에 정치적 갈등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만큼 정치적 견해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002 월드컵 당시에 정파에 관계없이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요즈음처럼 정치적 갈등이 심한 시기에도, 정혁선수가 테니스 그랜드슬램 대회인 호주오픈에서 역대최고인 4강에 진출하자 모든 신문이 한 마음으로 보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번 달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과 스포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달의 표지 인물로 평창올림픽 유치실무위원장을 역임한 박선규 전 문화체육부차관으로부터 유치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아울러 그가 크리스천 언론



인으로써 중군기자 활동한 이야기와 최근활동인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더불어 꿈>>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손봉호 대표주장께서는 “올림픽의 타락과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올림픽의 부패, 성적 타락, 프로들의 출전을 비판하며 이 모든 것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김현수 목사는 올림픽 전반에 대한 기독교계의 비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기독교 세계관에서 올림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올림픽의 인본주의, 상업주의, 민족주의 등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통한 놀이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놀이 공동체를 형성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에게 경기를 시키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태권도 9단인 배성민교수는 “신체가 주는 참다운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버태권도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송인규교수의 책갈피를 통해서 운동경기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갖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연중 계속되는 고정칼럼의 제목을 “Book & culture”로 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영화읽기를 맡은 숭실대학교의 남정욱 교수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영화 <벤허>와 반기독교적 영화로 주목을 받았던 <밀양>을 연결시켜서 그의 독특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에 처음 소개된 국민대 조소과의 이용배 교수는 “공동체와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예술가의 자유로운 사고와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나만의 하나님을 넘어 만유(萬有)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이어 최충희 사모의 수필, “고통, 빛의 시간”과 이우제 백석대 교수의 “기독교세계관으로 읽는 요한계시록” 두 번째 글을 실었습니다. 

『월드뷰』가 만난 이달의 인물

평창 올림픽 유치 실무 위원장 박선규 전 차관을 만나다

박선규 차관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KBS에서 20년 3개월 동안 현장기자와 뉴스 앵커로 일했다. 기자로서는 중군취재로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앵커로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9.11 테러 직후엔 미국 의회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미국에 대한 그의 통찰력이 담긴 『미국 왜 강한가』라는 책을 쓰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탁되어 언론비서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으며, 그 이후 문체부 차관을 지내면서 2018 평창올림픽 유치 실무위원장을 맡아 유치 성공에 일익을 담당하여 황 조근총총장을 받았다.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이끈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룬다는 말씀을 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 대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인터뷰 배성민 교수 (강동대학교 교수)

배성민: 평창 올림픽이 이제 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느낌이 남 다르실 것 같아요.

박선규: 아, 결국 여기 까지 왔네요. (웃음). 느낌이 남 다르지요. 2011년 유치 당시를 돌이켜보면 당연히 설레고 흥분되고... 개막일이 기다려져야 하는데 솔직히 요즘은 그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잘 치러낼 수 있을까? 세계 속에 내놓았던 약속을 지켜내면서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배성민: 왜 그런 걱정을 하시지요?

박선규: 모두가 아시는 대로 올림픽은 평화의 축전이 돼야 하잖아요. 갈등과 분쟁의 요소마저 다 녹여내 화합을 도모하자는 것이지요. 당연히 지금은

대한민국 땅 구석구석까지 그런 국민적 기운이 감돌아야 하는데 그런 신명나는 기운이 없다는 말이지요. 한번 보세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대신 잡음과 파열음이 강해요. 어떤 분들은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 되는 것 아니냐?’라고도 하고... 느닷없는 북한 변수가 생겨서 선수단은 선수단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갈라져 있으니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배성민: 그럼 차관님께서서는 북한의 참가, 나아가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

박선규: ‘평화의 제전’이라는 올림픽 정신이 있



는데 누가 북한의 참가를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요. 그리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단일팀도 바람직한 일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과연 그럴 시기인가? 또 논의되는 방법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지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평창 올림픽을 ‘핵개발 위기’ 돌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깡패로 인식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과격적인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정부가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여 주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의를 갖고 봐 주려 해도 도가 지나쳐요. 그냥 여러 참가국 가운데 하나로, 여러 선수단 가운데 하나로 맞으면 될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은데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무리한 정치적 주장을 다 수용하면서 말이지요. 올림픽이 견지해야 할 핵심 가치가 ‘탈정치화’인데 그게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주최국인 우리에게 의해서 말이지요... 그것이 걱정스러운 것이지요.

배성민: 여자 아이스하키 등 단일팀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수들의 반발이 거센 것도 그런 이유라고 봐야겠군요.

박선규: 그들의 반발은 당연하죠.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올림픽이라는 목표 하나로 지금까지 몇 년씩 죽어라 고생해 온 선수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느닷없는 ‘단일팀’으로 출전기회조차 박탈당할 상황인데 그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한번 밖에 오지 않는 기회인데요. 더더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외쳐온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위안부 합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문재인 정부의 논리 가운데 핵심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졌지요. 당사자인 선수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단일팀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매달리는 지금의 모습이 과연 위안부 합의 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당사자인 선수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단일팀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매달리는 지금의 모습이

과연 위안부 합의 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배성민: 말씀을 듣고 보니 답답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박선규: 욕심 때문이죠.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 물꼬를 터보겠다는 욕심 말이지요. 남북관계 개선을 정권의 실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선 결과라고 봐야겠지요. 그러다보니 다른 주변 요인들이 안 보이거나 무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심각한 처지, 우리 선수들의 마음, 국민의 생각, 우방국들의 시선 등... 화가 나는 것은 그런 우리 정부의 내심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북한이 우리를 갖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북한의 갑질에 속절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어설피고 한심스런지요. 왜 이렇게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지...

배성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은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선규: 성공해야지요. 당연히 성공시켜야지요. 차관시절 3번째 도전을 이끌며 외국 기자들과 IOC 위원들에게 설파한 논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올

림픽에 빛진 나라다. 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 독재와 부패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설 수 있었다. 그 후 30년 가까이 올림픽 정신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 빛을 갖고 싶다.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나라들에게 우리의 그런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들어주었지요. 진심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변명을 구가하는 우리의 디딤돌은 올림픽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치가 흔들릴 때도, 경제가 휘청거릴 때도, 사회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였을 때도 분연히 일어나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은 항상 국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번에도 이러저러한 잡음은 있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힘으로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낼 것으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과정에 정치가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를 만들지 말기를 바랄 뿐이지요.

배성민: 얘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잠깐 분위기 전환을 위해 2011년 유치당시로 돌아가 보실까요? 당시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었어요.

박선규: 예,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뮌헨, 프랑스의 안시와 한국의 평창이 경쟁했는데 우리가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65표를 얻었지요. 기대 이상의 득표였습니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평창’하고 발표하는 순간 더반의 컨벤션센터는 박수와 환호가 터지는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한데 저는 오히려 정신이 멍해 지더군요. ‘아, 이제 됐구나!’하는 안도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차관이 된 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왔던 과제를 완성했다는 안도감! 사실 더반으로 떠나며 저는 ‘유치에 실패하면 차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약

속을 기자들에게 했었습니다. ‘웃 안 벗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까요? (웃음)
 그날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주자들 모두가 잘 해줬지만 저는 마지막 주자인 토비 도슨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의 발표 때 저는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그야말로 잘 짜여진 스토리에 감동을 더하는 화룡점정이었죠. 그의 발표에 처음엔 약간 거만한 듯 뒤로 제껴졌던 위원들의 자세가 어느 순간 턱을 괴거나 두 손을 모은 공손한(?) 자세로 바뀌었고 일부 위원들은 물 컵을 연신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배성민: 그렇게 감동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한 토비 도슨은 차관님께서 발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선규: 제가 발탁했다기보다는 발탁의 계기를 만 들었다고 해야겠죠. 저한테 전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막힌 타이밍이었지요. 차관 시절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한국에 온 토비 도슨과 처음 만났는데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순박한 인상에 참 겸손했지요. 그 모습이 ‘감동 컨셉’을 구성하는 핵심요인으로 그를 고려하게 만듭니다. 입양아에서 동계올림픽 스타가 된 그의 개인 스토리가 그야말로 희망이고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정병국 장관과 컨설턴트 등에게 전했고 내부 논의를 거쳐 그를 발탁하게 된 것이지요.

배성민: 가수 인순이씨도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박선규: 그렇습니다. 제 인터뷰를 마친 후 토비 도슨을 포함한 제작팀을 필동 한국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멋지게 저녁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 인생을 살고 있는 토비 도슨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죠.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한 친구의 면을 세워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요. 한데 토비 도슨 옆에 누군가를 앉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생각난 게 인순이였습니다. 뭔가 둘이 잘 통할 것 같았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함께 해 달라고 청하자 인순이는 기꺼이 시간을 내 주었지요. 그날 토비 도슨의 옆자리에 앉은 인순이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인처럼 생겨서 한국 사람으로 사느라고 힘들었는데 너는 한국인처럼 생겨서 미국 사람으로 사느라고 참 힘들었겠구나 애!” 예기치 않았던 얘기에 껄껄 웃어줬지만 마음 속엔 쿵하는 울림이 있었어요. 지금은 성공한 입장에서 웃고 있지만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힘겨웠던, 어쩌면 처절했던 과거사가 다 녹아 있었음을 알기 때문이었죠. “아, 그래. 저 얘기. 토비 도슨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충분히 통할 수 있겠구나. 다른 종목이 아닌 모굴 스키의 메달리스트이기에 그의 존재 자체가 동계올림픽의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결국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토비 도슨을 세워야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배성민: 토비 도슨만 얘기하시면 다른 분들이 서운해 할 것 같은데요?

박선규: 맞습니다. 어찌 토비 도슨 한 사람이 이런 결과이겠습니까? 조양호 위원장과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포함해 다 역사를 이룬 분들이지요. 특히 김연아의 인기와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보니 김연아는 IOC 위원들 사이에서 아이돌 스타였



어요. 그 대단한 분들이 서로 사진 찍으려고 칭하고 얘기하고 싶어 접근하고... 이견희 회장도 대단했지요.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했기에 저나 우리 측의 유치위원들이 IOC 위원들을 만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한데 그때마다 우리는 ‘을’이었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했지요. 때론 선물도 줘야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IOC 위원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 이견희 회장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그 호텔에 묵고 있는 모든 IOC 위원들이 로비에 거의 도열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눈도장이라도 찍기 위해서요. 거기서 저는 삼성의 힘을 봤지요. 이견희 회장의 아우리가 그렇게 강하다 보니 위원들 가운데서는 “이 회장의 사위인 김재열 비상연맹회장장과 식사를 했다느니, 골프를 쳤다”느니 하고 저에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2010년 12월 31일 이견희 회장을 특별 사면한 것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평창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승부수였다고 할

수 있지요. 거기에 총회 닷새 전 더반에 도착해 5일 동안 20여명의 부동표로 분류된 IOC 위원 20여명을 은밀하게 만나 맞춤형 대화로 지원을 당부한 대통령의 현지 지원활동도 빼 놓을 수 없는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배성민: 그런 사람들의 활동 외에 IOC 위원들 사이에서는 ‘드라이브 더 드림’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은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라는 평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득표에도 도움이 됐다고요.

박선규: 맞습니다. ‘드라이브 더 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2004년 첫 번째 도전을 하면서 평창은 IOC에 약속을 합니다. “평생 눈 구경하기 어려운 나라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스키와 스케이팅 등 종목을 체험하게 하고 그를 통해 올림픽 정신의 전파에 앞장 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평창은 계속 지켜온 것이지요. 심지어 떨어진 이후에도 말이지요. 그런 평창의 모습에 적지 않

은 IOC 위원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평창은 떨어져서도 약속을 지키는구나...” 통계를 보니까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83개국에서 1,919명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장애인들도 164명이나 됐고요, 그들 가운데 179명은 자기 나라의 선수가 됐다는 통계도 있더군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말레이시아 최초로 동계올림픽 피겨에 출전하는 줄리안이 선수와 루마니아 대표로 쇼트트랙에 출전하는 에밀 임레라는 선수는 ‘드라이브 더 드림’ 출신이라더군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배성민: 유치가 확정 된 후 이광재 전 지사에게 전화를 하셨다고요?

박선규: 예,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1차 2차 때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조용히 잊혀져간 사람들... 그런 얼굴들 가운데 이광재 전 지사가 있었지요. 유치 실무위원장의 책임을 맡고 기록을 살펴보니 참 노력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데 지금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많이 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지요. 하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흘러주신 땀이 있었기에 오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성공과 함께 지사님의 노력도 굵게 기록될 것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지사 외에 이창동, 유인촌 전 장관 등 몇 명과도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남겼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짚을 것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2011년 결정 당시 이

명박 정부와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의 노력만으로 유치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4년 이후 좌파정부와 우파정부가 대를 이어가며 힘을 더했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2011년 유치는 그런 바탕위에서 성공을 이뤄낸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유치성공의 기쁨을 맛본 저를 포함해 정병국 장관이나 최문순 지사 등은 운이 좋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올림픽은 우리가 유치했는데 생색은 엉뚱한 사람들이 다 낸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성민: 아, 강원도 크리스찬들 사이에 2010년 있었던 평창유치를 위한 햇불집회에서 차관님이 했던 얘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박선규: 아, 그런가요?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차관으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죠. 2010년 8월로 기억됩니다. 강릉빙상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픽 유치를 위한 햇불 기도회’에 김장환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열기가 대단하더군요. 대부분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 ‘힘을 모으자’라며 분위기를 띄우는데 어떤 분이 지난 두 차례의 실패를 얘기하며 ‘평창은, 강원도는 그 두 번의 실패 후 정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고속철도 계획도 취소되고 개발 계획도 취소되고... 힘든 시절이 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표하며 청중들을 선동하고 있더군요. 마침 그 분 뒤로 제가 연단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원도를,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제가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지난 두 번은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 고군분투하셨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중심에 서겠습니다.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노력만 더해주시면 반드시 제가 앞장서서 성공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많은 박수를 받았지요.

배성민: 이번엔 차관님 개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방송 앵커 출신이시지요?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보니 은근히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박선규: 그런가요? 감사한 얘가지요.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7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20년 3개월 일했습니다. 그 동안 뉴스 앵커 외에 ‘사건 25시’, ‘일요진단’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지요. 그리고 걸프전과 소말리아 내전, 유고 내전 등을 5차례 중군기자로 일했고요. 아마도 대한민국 기자 가운데서는 전쟁 취재를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체험했지요. 전쟁터를 경험하며 제가 얻은 나름의 결론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실패하면 국가가 불행해지고 국가가 불행해지면 국민은 비참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쟁을 겪는 나라들은 예외없이 정치가 실패한 나라였고요. 운 좋게도 2002년에는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인 에드워드 로이스의 보좌관으로 1년 동안 일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정치의 중심이라는 미국에서 미국 정치를 관찰하고 한 발 떨어져서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귀한 기회였지요.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파동 직후에 방송전문가로 발탁돼 청와대에서 일했고 그후 문화체육관

광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그런 이유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무책임자도 된 것이지요. 하다 보니 방송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배성민: 전쟁터를 그렇게 많이 다니셨다니 놀랍습니다. 겁나지 않으셨나요?

박선규: 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기자라면 한번쯤 중군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기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었겠죠. (웃음) 처음 걸프전에 자원할 때 결혼한 지 1년 3개월 됐었습니다. 큰 딸이 70여일, 기자 생활은 만 3년을 갓 넘긴 상태였지요. 어느 날 회사에서 중군취재 자원자 손들라는 말에 망설임없이 손을 들었는데 문제는 저 말고는 손 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발을 빼기는 늦었죠. 그렇다고 아내에게 전쟁터에 가게 됐다고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걸프전 뉴스를 보며 ‘언제까지 저런 뉴스를 외신으로 받아야 하나? 우리도 누군가 보내야 할텐데 누가 걸릴지 참...’ 의도된 낚두리를 털어 놓았지요. 다음날도 같은 얘기를 반복했더니 와이프가 눈치를 채더군요. “왜, 걸프전에 나가세요?” “아냐, 난 못가지. 저긴 고참들이 가는 건데...” 그렇게 좀 뜬금없이 속을 드러냈습니다. “한데 회사에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사표 내야지!” 예상보다 훨씬 단호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의도가 있었던 바라나도 한마디 했습니다. “실망이다. 내가 얼마나 기자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사표 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나? 그리고 나는 안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은 가도 된다니... 왜 그렇게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어. 나, 너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 문을 광 닫고 나와 버렸지요. 그렇게 5일쯤 신경전이 전개됐지요. 결국 와이프가 수정제안을 하더군요. “좋다. 명령이라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절대 자원은 안 된다” “미쳤나? 내가 그런텔 자원하게...” 일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 저는 40여일을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비행기 타고 처음 나가본 외국이 전쟁터라니... 그 기간 동안 큰 딸의 100일이 있었지만 아빠가 전쟁터 가 있는데 잔치를 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랬기에 둘 잔치를 조금 신경 써서 했는데 그때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KBS 후배 가운데 아내의 대학 후배가 집에 들어서면서 한마디 날린 겁니다. “아니 형수는 어떻게 했기에 형이 신혼살림에 전쟁터를 자원하게 만듭니까?” 눈치없는 그 후배의 그 한마디에 비밀은 탄로났고 손님들 보내고 나서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와이프가 영영 울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한데 그 뒤로도 4차례나 더 전쟁터에 나갔으니....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중군취재를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기자로서의 생각도 바로 세울 수 있었으니까요.

배성민 :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박선규: 모태신앙입니다.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결혼 전부터 신앙을 가지셨죠. 하지만 집안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는데 장남인 저의 홍역을 계기로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홍역을 하던 제가 거의 죽어 희망이 없다는 판정이 났는데 어머니께서 목사님 기도 한번만 받도록 해달라고 할머니께 간청을 했답니다. 장손의 위기에 할

제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니가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기도를 받은 후 저는 살아났다고 하고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모두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신 할머니는 평생 한글을 깨치지 못하셨는데 그럼에도 매번 예배시간에는 가장 먼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신 신앙의 어른이셨습니다.

배성민 : 그렇다면 차관님께서는 기독교 집안에서 가족의 기도 속에 평탄하게 자라오셨겠군요.

박선규: 그렇게 보이시나요? 신앙을 가졌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생활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5살 때,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돌아가셨지요. 당시 어머니는 31살이셨고 어머니께는 저 말고도 6살, 3살, 100일의 어린 4남매가 남겨졌지요. 아버님은 마을에서 가장 일을 하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동네 사람들의 인심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비료 외상 가져간 일 없다’ ‘당신 남편이 보증했으니 갚아라..’ 달라는 대로 다 갚고 나니 고무 2가마가 남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밤 고향을 뜨셨지요. 무섭게 변해버린 사람들이 무서웠고 무

엇보다 어린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랬으니 31살 청상과부에 핏덩이 같은 4남매의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비참했겠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는 생활보호대상자였습니다. 정부에서 나눠주는 밀가루를 통해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행인 것은 우리 가족 모두 신앙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머니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새벽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저는 그런 어머니의 기도의 결과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제 모습 속에서 그런 과거를 상상조차 하지 못하지요. 사람들은 KBS 기자와 청와대 대변인, 문화부 차관 등의 타이틀만 보고 고생은 한 번도 안 하며 자랐을 것 같다고, 성공의 탄탄대로를 달려온 인생이 분명할 거라고 말하지요. 아닙니다. 무지 힘들었습니다. 다만 그 힘든 시절을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이겨냈을 뿐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성민 :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박선규: 2017년을 보내며 많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정치인의 옷을 벗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을 꿈꾸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권 전반의 문화였습니다. 온갖 거짓과 모략, 선전 선동이 총동원됐지요.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크리스찬들조차 그런 분위기에 영향 받아 찢기고 갈라지

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신앙인들끼리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손가락질하고 침 뱉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신앙의 동지들 사이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지요. 재미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잘 지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보다 세상의 도가 더 강하다는 것이지... (웃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비교적 여러 일들을 경험하며 결국 사람을 기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꿈"이라는 사단 법인을 만들었지요. 가난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인입니다. 특별히 문화와 봉사 체험을 통해서 저들의 꿈을 자극하고 키워주는 일을 하지요. 왜 문화냐고요? 문화는 벽을 허물고, 선입견을 깨고... 부정적인 것을 뛰어넘는 꿈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 발레, 오페라 등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캄보디아의 빈민촌에서 봉사활동 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세계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보람이 큼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정말 흐뭇해집니다. 이제 몸도 훌가분해졌으니 올해는 더 뛰어다지요. 1만 원짜리, 1만 개의 후원구좌를 만들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소박한 꿈입니다. 월드뷰와 독자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을 멋지게 펼쳐갈
내일을 꿈꿉니다,

”

협력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사랑의열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신씨컴퍼니, PMC, 서울시립유지재단, 세종문화회관, 우리결의를래식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사)한중학술문화교류협회, 사)밤퍼공동체
명보아트홀 드림캣, 하우스콘서트, 더뮤즈오페라, 다일공동체, 스테이지원
사)한국대학산악연맹, 사)휴먼인러브, 해피페이퍼, 세이벨관광청, 인오션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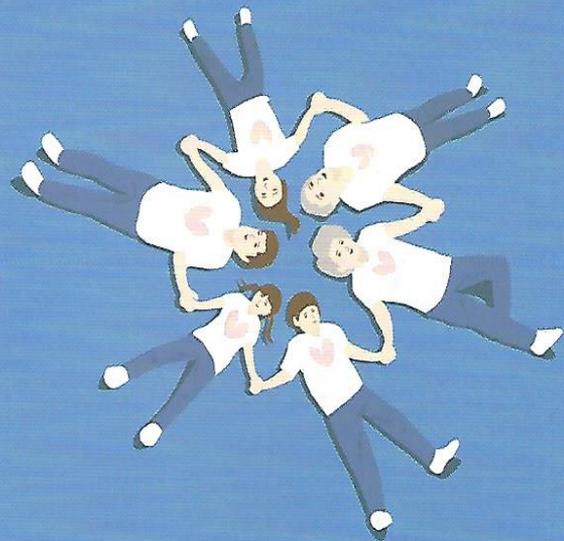
사단법인 더불어 꿈

사업자등록번호 107-82-17206
법인등록번호 254121-002228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88 윤당제1빌딩 301호
Tel 02.2632.4011 Fax 02.2635.6472
www.dreamtogether.or.kr



더불어 꿈

문화체험!
봉사체험!
국제 CAMP 체험!



네이버에서 **더불어 꿈** 을 검색하세요

사단법인 더불어 꿈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2013-39)

WORLDVIEW

COLUMN



손봉호의 유머 _ “창조의 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자를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다.
미리 만들어 놓았으면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칼럼의 내용은 필진의 개인적 견해이며, 월드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올림픽의 타락과 종말



손봉호 교수 (대표주간)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기아대책기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2018 동계 올림픽경기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아무 사고 없이 성공리에 잘 끝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올림픽에 대해서 열광적일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것은 단순히 올림픽이 제우스신을 섬기는 고대 그리스의 종교적 축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그 시작이야 어떠했던 지금의 모습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올림픽경기에는 심각한 약점들이 너무 많다.

프랑스 교육자 쿠베르탱 (Pierre de Baron Coubertin)이 18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조직하고 1896년에 아테네에서 제 1회 국제올림픽대회를 개최했을 때만 해도 그 이상과 실행은 훌륭했다. 스포츠를 통하여 청년들의 정신을 건전하게 육성하며 세계 모든 나라 젊은이들이 국가, 인종, 종교 등의 차별 없이 공정한 규칙에 따라 서로

경쟁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는 흠잡을 것이 없다. 처음에는 남자들만 경기에 참가하고 여자는 승마에만 국한되었으나 1900년부터 여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종목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종교, 인종, 국가의 차별을 금지하는 처음의 정신은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서 자메이카 같은 약소국 선수가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에만 가능하다. 어쨌든 강국과 약국, 부국과 빈국 젊은이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만나서 사귀고 같은 규칙에 따라 경쟁한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든 전투행위를 중단하자는 약속과 전통도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한이 오랜만에 접촉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했다. 쿠베르탱이 염원했던 평화증진이 조금이나마 효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올림픽 경기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타락하여 지금은 계속 개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1972년 독일 뮌헨 경기 때부터 반 올림픽 위원회 (Anti-Olympic Committee)가 조직되었고 지금은 개최 후보지마다 거의 빠짐없이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 올림픽은 성경이 요구하는 윤리는 차치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에도 미달하므로 그리스도인이 안심하고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실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부패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위원장 및 위원 선임에 둘러싸고 뇌물 소문이 끊이지 않고,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위원직을 사임한 위원도 여럿이다. 현 위원장은 투명하기로 유명한 독일 출신인데도 그 선임과 관계해서 잡음이 없지 않

다.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민주국가 정부처럼 권한분립이나 대중 선거 같은 견제장치가 없으므로 타락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큰 국제적 행사의 모든 것에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가 이렇게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는데 경기 그 자체는 공정하고 신사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요즘 다른 경기들도 비슷하지만 모든 운동경기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 경기에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난무한다 한다. 물밑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시하기가 어려운 수영 같은 경기에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규칙에 어긋난 발질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한 수상자도 있다.

경기(play)의 생명은 공정한 규칙과 그 규칙의 공명한 준수다. 영어로 공정한 경쟁을 fair play라 부르는 것도 그것을 반영한다. 공정성 (fairness)의 전형이 경기(play)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경기의 목적이 “신사적” fair play 보다는 이기는 것

에 있고, 이기기 위해서는 fair play를 무시하게 된 것이다. 올림픽 경기의 모토처럼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Citius, Altius, Fortius) 움직임으로써가 아니라 상대가 방어하기 어려운 술책을 씀으로 이기는 것이 당연시 되고 말았다. 신사적인 경쟁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졌다. 선수들이 머무는 올림픽 마을도 성도덕이 매우 문란하다 한다. 서울 올림픽엔 8500개의 콘돔이 사용되었고 리오 올림픽 때는 무려 45만 개가 제공되었다 한다.

올림픽 경기의 타락을 가장 확실하게 과시한 것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직업선수를 포함한 미국의 농구팀의 출전을 허용한 것이었다. 고대 올림픽은 말할 것도 없고 1894년 근대 올림픽이 탄생한 후 20세기 중반까지도 운동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직업선수는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구 소련과 동독 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정부 돈으로 선수들을 “제조” 하여 올림픽에 출전시키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마침내 아마추어 만이란 장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이제는 선수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이 아니라 돈이 승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 있고, 중국, 한국 같은 나라는 아직도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악습을 완전히 못 버리고 있다.

이 모든 타락의 원흉은 돈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임이 올림픽에도 증명되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는 승자가 받는 상이 래야기껏 끝 시들이 버리는 월계관과 관중의 칭찬에 국한되었다. 텔레비전 중계가 불가능했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승전한 선수가 받은 보상은 메달이란 명예에 불과했다. 승부욕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고 선수들이 규칙을 어길 유혹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텔레비전이 많이 보급되고 경기가 전 세계

이제는 선수개인의 역량이나 노력이 아니라 돈이 승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 있고 중국, 한국 같은 나라는 아직도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악습을 완전히 못 버리고 있다.

돈이 올림픽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타락이 시작된 것이다.

로 중계 방송되자 개최자와 후원 기업의 광고 효과가 엄청나게 커졌고, 승자들이 받는 보상과 혜택도 늘어났다. 그 때부터 돈이 올림픽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타락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돈 잔치가 되어버린 올림픽 경기는 바로 개최비용 때문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경기 이후 모든 경기는 다 적자였고 특히 지난 번 브라질 경기의 적자폭은 그 나라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선진국들에는 보스턴, 오슬로 등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는 특이하게도 올림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없다. 88 올림픽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였고, 국력에 비해서 올림픽에서 거두는 성과가 과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무비판적인 열광이 자칫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특히 타락한 윤리를 당연한 것으로 보게 할까 걱정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



박선규 차관 (2018 평창올림픽 유치 실무위원장)

박선규 차관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KBS에서 20년 3개월 동안 현장기자와 뉴스 앵커로 일했다. 문체부 차관을 지내면서 2018 평창올림픽 유치 실무위원장을 맡아 유치 성공에 일익을 담당하여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 대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2011년 7월 5일 오후 5시,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하루 전날의 더반 국제 컨벤션 센터엔 무거운 적막감이 흘렀다. 나승연 대변인, 조양호 유치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김진선 특임대사, 김연아 선수, 문대성 IOC 위원,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토비 도슨 선수 순서로 마지막 리허설을 끝낸 상태였다. 경직된 표정, 어색한 동작, 매끄럽지 못한 연결... 처음부터 지적된 문제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모두 곤혹스런 표정이었다.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씨가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차관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동을 만드는 미세한 움직임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없습니다.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 누가 기획한 거지요?” 걱정을 잔뜩 실은 정씨의 얘기는

사실 나 또한 그대로 느낀 것이었다. 하지만 어찌랴. 이제 고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을... 말을 마친 정씨는 어느 샌가 대통령 옆으로 자리를 옮겨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대통령을 비롯해 조양호 위원장 등 대표단 모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누군가 “뭘헐, 안시는 우리보다 더 못했답니다. 내일은 다 잘 될 거예요.”라는 말로 분위기를 바꿔 보려했지만 무거움이 다 가시지는 않았다. 걱정이 밀려왔다. “지금까지 정말 잘 해 왔는데...” 저만치서 읊저버 자격으로 함께 온 텔런트 정준호씨가 토비 도슨의 어깨를 감싸 안고 무엇인가 얘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중에 확인하니 정씨는 “다른 것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네 얘기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얘기했단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더반 총회, 대한민국의 히든 카드는 토비 도슨이었다. 3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지내던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돼 스키를 배웠고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해 남자 모굴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낸 인간승리의 주인공이었다. 그의 발탁은 의외의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더반 IOC 총회가 열리기 5개월 전, 미국에서 살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이 그와 함께 내사무실을 찾아 왔다. 친구는 “미국 공중파 방송으로 방영 될 토비 도슨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러 왔다”며 “한국의 체육정책 책임자로서 인터뷰를 하나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처음 만난 토비 도슨은 예의 바르고 반듯한 청년이었다. 그의 얼굴 어디에서도 ‘입양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만났던 그가 3개월 후 머릿속에 떠올랐다. 5월 18일 스위스 로잔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마지막, 결전의 날 프레젠테이션의

콘셉을 ‘감동’으로 가기로 하면서였다. 고아 아닌 고아로 자라 온갖 역경을 딛고 미국의 스포츠 스타로 성장한 토비 도슨의 개인 스토리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국의 목전에 진입해 선진국들의 스포츠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그가 나서준다면 그 자체로 ‘감동’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그런 계획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참가를 요청했을 때 그는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영광이라며 흔쾌하게 응해줬다.

결전의 날인 7월 6일 오전 7시 30분, 대표단이 이용하는 호텔 식당에 김윤옥 여사가 내려왔다. 평소 대통령과 별도로 식사를 하는데 여사님이 어쩐 일인지 부속실 직원들과 한쪽 편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내가 다가가 얘기했다. “괜찮으시면 9시쯤 우리끼리 잠시 예배 드리시는 게 어떨까요?” 청와대 근무 당시 기독교신우회장을 맡았던 나를 김윤옥

여사는 기억하고 있었다. “좋지요. 9시에 제 방에서 드리시지요.” 기다렸다는 듯 반가운 답이 이어졌다. 그렇게 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앞둔 시간, 더반의 호텔 김윤옥 여사 방에서는 10여명의 조출한 예배가 드려졌다.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는 대표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다. “저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주시라”고, “IOC 위원들의 마음을 열어 진한 감동이 전해지게 해 주시라”고, 정말 찢는 기도가 올려졌다. 기도를 마친 후 혹시나 싶어 영부인에게 “전하실 말씀이 없느냐?” 여쭙는다. 기다렸다는 듯 큐티 책을 꺼내들으신다. 오늘 새벽 일어나 큐티 책을 펼치니 말씀 제목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으로 오를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었다. 여사께서는 “오늘 말씀을 묵상 제목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대한민국에 올림픽 유치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하며 활짝 웃으셨다.

드디어 더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경쟁 도시들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다. 뮌헨, 안시, 평창의 순서였다. 경쟁 도시들의 프레젠테이션은 평이했다. 예상했던 수준이었다. 드디어 우리 차례, 나승연 대변인의 차분한 오프닝에 이어 조양호 유치위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뮌헨과 안시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평창보다는 조금 덜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 위원장의 조크에 장내에선 웃음이 터졌다. 초반의 분위기가 확실하게 잡히고 있었다. 이어 나서는 주자들마다 여유 있는 모습으로, 때로는 차분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평창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놀라웠다. 분명 사람들은 어제 리허설 때의 그 사람들인데 발표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해 있었다. 현장의 모든 관객들이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에 빠져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주자인 토비 도슨이 무대에 올랐다. “제 이름은 토비 도슨, 한국 이름은 김봉석입니다.”를 시작으로 세 살 때 부산 중앙시장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미국에 입양돼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기까지의 개인사를 설명하며 평창 개최의 당위성을 감동적으로 전했다. 객석 IOC 위원들의 반응을 살피니 팔장을 끼는 등 다소 거만한(?) 모습이었던 그들의 자세가 어느새 토비 도슨을 향해 기울어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도 내, 외신 가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다. 환상적이었다며 일부러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기자들도 있었다. 어제 혹평을 했던 정명훈씨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큰 실수를 했었네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5시, 한국시간은 6일 자정이었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쪽지를 펴 보이며 ‘평창’을 선포했다. 한국 대표단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서로 얼싸 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이견회 회장도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63:25:7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이었다. 그것도 1차 투표에서. “차관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김윤옥 여사가 명하게 서 있는 내손을 덥석 잡으며 외쳤다. 할렐루야! 아멘! 

올림픽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과 대안



김현수 목사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총신대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삼수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린다.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88 올림픽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¹ 벌써 30년 전에 쓴 글이지만, 창조-타락-구속의 관점에서 올림픽이라는 현상을 재평가하려는 시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리라 생각하여 그 글을 요약한다.

I. 올림픽에 대한 여러 관점들

올림픽은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을 표방하지만,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

다. 이미 정치 경제적인 이해 관계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그 문제를 다 다루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이 올림픽에 대하여 말하는 관점들을 재평가하려고 한다.

첫째, 올림픽이 표방하는 ‘세계 평화’, ‘동서 화해’ 등을 기독교의 ‘평화’, ‘화해’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입장이 있다. 사랑과 용서의 종교인 기독교는 공산권과 비공산권의 화해도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런 능력을 구비했기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은 매우 피상적인 견해이다. ‘기독교가 어떤 의미에서 화해의 종교인가’, ‘올림픽이 근본적으로 인류의 화해 증진에 기

¹ 김현수, “88 올림픽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 『프뉴마티코스』 2호 (1988).

‘세속인들의’ 행동에 의미와 활력을 주는,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세속화된 종교’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성 찬미’, ‘상업주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등이 현대 올림픽을 이끌어 가는 종교적 동인이라고 생각한다.

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소원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림픽을 ‘동서 화합의 대잔치’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념, 인종, 빈부, 종교 등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에게 생의 의미와 희망을 제공하기에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등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올림픽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 올림픽의 역사만 일별해 보아도, 24회나 개최된 지금이 처음보다 인류의 화해를 더 증진시켰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또한 성경은 화해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제시한다. 성경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결코 화해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롬 1:28-32, 3:23). 그렇기에 오직 죄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다른 지체들과 화해를 누리는 것이다(롬 5:1, 15:1-2, 엡 4:3-4). 이렇게 볼 때 위의 주장은 상당히 지적이고 세련되어 보이는 주장이나,

기실에 있어서는 복음의 내용을 희석시킨 것이다.

둘째, 해방 신학과 민중 신학에서는 운동권과 비슷한 논리로 올림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올림픽을 물신화(物神化)한 자본의 논리로 설명하는 이들은 한국이 제국주의자인 미국에 의하여 분단되었으며 북한이 참가하는 ‘공동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분단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그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도 너무 단순하다. 88년에 소련이나 동구권이 참가한 현실을 담아내기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공동 참여, 혹은 불참으로 인하여 우리의 분단 상황이 해소되거나 고착화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가 된다.

또한 그 분석틀에도 약점이 있다. 그들은 성경에서 신학의 방법론을 찾아내려는 진지한 시도 대신에 쉽게 마르크스주의의 방법론을 취하고 거기에 기독교의 옷을 입힌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또한 기독교의 사랑을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으로 국한시키거나 자본주의 체제의 타파와 결부시키는 점에서는, 정도의 차이일 뿐 기독교가 동서 화해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셋째로, 올림픽의 종교성에 주목하여 올림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지모신(地母神) 숭배에 기원을 둔 올림픽 제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각처에서 선출된 남자들이 사제들 앞에서 한 달간의 엄격한 예행연습을 한 후 나체로 지모신의 제전, 즉 올림픽에 참가한 사실을 지적한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적 행사였고, 올림픽 제전을 통해 젊은이들은 올림픽 종교의 신봉자로 굳어져 갔던 것이다. 그들

은 로마 시대의 올림픽이 황제 숭배 사상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기독교인 황제인 테오도시우스에 의해 394년에 폐지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올림픽은 우상 숭배에서 기원했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으므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조금의 우상 숭배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찬동한다.

그러나 올림픽 제전은 과거에도 단순한 우상 종교 행사에 그치지 않았고 그 시대의 사조나 정치적 목적과 긴밀히 연결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그러한데, 그 큰 줄거리는 농치고 표면상의 몇 가지만 가지고 언급하는 것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는 패하는 경우가 되기 쉬울 것이다.

이보다 좀 더 지지를 얻는 입장은 올림픽을 ‘전도 올림픽’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 88서울 올림픽 당시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에서 몇몇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준비를 하였다. 모 신학 대학 학장은 이렇게 글을 썼다. “만약 사도 바울이 20세기에 살아 있다면, 그는 ‘올림픽 서신(The Epistle to the Olympians)’을 기록했을 것이다. 즉 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의 교회들에게 올림픽을 최상의 선교 기회로 삼으라는 권면의 편지를 썼을 것이다.”(《기독교 사상》, 1988년 6월 호, 52-56.)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에서는 배울 것이 있겠지만, 그 열정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올림픽 서신’을 쓰지 않았고, 그 대신 지식을 좇지 않은 열심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롬 10:2). 구원 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올림픽 서신’ 운운하며 복음 전파만 강조한 것은 균형 잡힌 온전한 지식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 올림픽 서신을 쓰지 않은 것은 올림픽이 우상

숭배와 결부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옳지만, 현대 올림픽이 갖는 그 종교적인 성향들, 즉 스포츠의 종교적 열광성이나 후론할 상업주의나 민족주의 등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져 있다. 이들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에 ‘육적’ 활동의 정당성을 오직 복음 전도라는 ‘영적’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데에서 찾는다. 그들은 신체 활동의 내재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그리고 올림픽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성경은 단지 전도용 책자일 뿐 매일의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종교 경전인 것이다.

II. 올림픽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분석

이제 올림픽을 기독교 세계관적 분석틀에 의해 분석을 하자.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자들(Neo-Calvinist)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적 분석틀의 기초는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따라서 종교적 존재라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피조계를 창조주와 구분하고, 창조주가 피조계에 부여하신 각각의 위치를, 그 조화 있는 우주(cosmos)를 궁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조계의 일부를 신의 위치로 격상시킨 자들은 그 격상된 피조물을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성하여 하나의 주의(ism)에 빠지게 된다.

오늘날에도 ‘세속인들’의 행동에 의미와 활력을 주는, 또한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세속화된 종교’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에 있어서도 그 배후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활력을 제공하며, 또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종교적 동인들이다. ‘인간성 찬미’, ‘상업주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등이 현대 올림픽을 이끌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종교적 동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인간성 찬미를 보면, 올림픽 기간 중에는 전쟁이 중지되었을 뿐 아니라 인간이 신과 함께 즐기는, 일종의 “인간성 찬미”의 축제가 벌어졌다. 19세기 말의 국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상황에서 쿠베르탱 남작이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킬 때의 이상도 인간성 찬미의 고대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이었다. 진한 감동을 자아낸 개폐회식, 생동하는 육체와 그 육체를 지탱해 주는 강인한 정신력, 육체와 정신의 균형과 조화, 새로운 기록을 인간 한계의 벽을 깨뜨린 것으로 온 인류가 찬미하며 새로운 벽을 깨기 위해 전신을 내던지는 것, 함께 보고 뛰며 즐기는 것 등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신뢰와 찬미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인간성 찬미는 그 자체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인간의 자율성(autonomy)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다른 대상, 즉 피조물에 기대어 그 의미를 찾을 수 밖에 없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곧바로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롬 1:18-32). 인간의 종교적 한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성 찬미를 외치는 올림픽이 왜 종교적 성향이 강한 상업주의나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에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둘째, 상업주의를 보자. 원래 올림픽의 이상은 상업주의를 배척하고 명예와 순수성만을 숭상하는 아마추어 정신이었다. ‘최후의 아마추어’로 불리는 5대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에이버리 브런디지 위원장은 체육 관계 장학금을 받는 자의 올림픽 참가도 금함으로써 많은 원망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 사업가 출신의 7대 위원장 후안 사마

란치는 “오늘의 스포츠는 필요 불가결하게 ‘상업화’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그도 기업이 스포츠에 ‘봉사’해야지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부언했지만, 장사꾼의 치부책에는 봉사와 이용의 경계선이 그리 분명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올림픽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올림픽 위원회는 오류 마크, 휘장 등 올림픽과 관련된 무형의 자산을 공식업체나 후원업체에 경매 처분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린다. 그리고 선수들 역시 국가나 기업체에서 내건 막대한 포상금이 그 동기가 되어 경기에 참여한다. 올림픽의 배후에서 큰 손 역할을 하는 것이 다국적 기업들이고, 참가하는 선수들 역시, 약물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들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줄 황금을 획득하기 위해 운동을 한다면, 이는 아마추어 정신을 주장하는 올림픽이 상업주의의 지배하에 있다는 예가 될 것이다.

셋째, 올림픽은 또한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 인해 몸값이를 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이 근대 올림픽을 주동한 것도 보불전쟁(1870년)에서 패배한 프랑스 국민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것과 관련되었다. 연대로는 조금 앞서지만, 1807년 나폴레옹에게 패배한 독일에서 체조 운동을 일으켰던 프레드리크 루디 얀은 단순한 체조 운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폴레옹에 대항할 만한 독일의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려 했었다. 체육 활동의 의미와 활력을 민족주의에서 찾고, 민족주의라는 하나의 구호 아래 민족 대중의 체력과 이념을 동원하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19세기 전반을 통해 흥기했던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 운동은 근대 올림픽의 부활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예로 베를린 올림픽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베를린 올림픽의 기본 방향은 바로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이었고, 진행의 모든 초점이 히틀러의 강력한 통치력과 군사력 등 나찌의 선전에 맞추어졌었다.

III. 기독교적 해결책

‘종교적 전제’와 ‘피조계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상’으로 구성된 ‘기독교적 틀’에 의하면 올림픽의 근본 문제는 그릇된 신앙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해결책으로 그릇된 신앙을 바꾸고 피조계에 대한 바른 상을 회복하라고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첫째, 올림픽이라는 정치·경제적 함축이 있는 문제를 논하면서 신앙을 바꾸라는 지극히 종교적인 대답을 제시하고, 둘째, 올림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논하면서 신앙의 변화라는 개인적 차원의 대안만을 제시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첫째의 비판은 우리가 지금까지 비판한 이원론적인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신앙과 현실은 이원론적으로 유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신에 대한 생각이 그의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것이다. 올림픽이라는 정치·경제적 함축이 있는 사건 역시 근본적으로는 종교적 동인 - 인간성 찬미, 상업주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 에 의해 방향 지워진다는 사실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둘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독교의 회심이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 회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전제로 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을 전제로 한 것이지, 다른 종교의 경우처럼 종교적인 개인주의를 장려하기 위한 것

악한 자는 올림픽이라는 것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따라서 우리의 신령한 싸움은 올림픽에까지도 확장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할 것이다.

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약간 단순화하여 이야기한다면, 교회에 들어오는 신앙 고백에 관한 한,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후의 교회 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이다. 따라서 신앙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증시하는 교회 공동체는 올림픽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다운 포괄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교회가 사회 제도의 변혁을 위해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나 '다른 방식'에 의해서이다.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릇된 신을 섬기는 것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그에 대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포괄적인 삶이 그 대안으로 제시된다. 올림픽에 대해서도, 교회가 올림픽을 지배하는 정신과 세속화된 종교 등에 정반대되는 원리에 의해 움직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환연히 증시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면 그것이 곧 그 대안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릇된 신앙으로 말미암은 올림픽의 문제점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한 풍요로운 신앙 공동체로 존재하면, 이미 산 위의 동리, 등경 위의 등불이 되는 것이다

(마 5:13-16). 이런 터 위에서 체육 등에 은사를 받은 자들이 나와 '대체 놀이 공동체'를 선도해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빛은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혹자는 매우 온건하고 지극히 개량주의적 대안이라고 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견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뿌리(radix)까지 바꾼다는 점에서 매우 과격하다(radical). 사람들은 몬트리올 같은 적자 올림픽을 면하고 올림픽의 규모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결탁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상업주의에 의한 약물 중독의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처방을 제시하지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면, 즉 상업주의나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된다면, 올림픽은 우선 그 규모가 작아질 것이고, 상업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몇몇 스포츠의 영웅도 사라질 것이다. 비온디를 통해 수영을 하고 루이스를 통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직접 놀이를 즐기며 진정한 놀이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그릇된 종교적 경향들이 파쇄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 제 위치를 되찾는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이고 철저한 대안이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그 악한 자'는 올림픽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따라서 바른 신관, 인간관, 사회관 등에 기초한 우리의 신령한 싸움은 스포츠와 올림픽에까지도 현실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슬러 높아진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할 것이다. 

신체활동이 주는 참다운 기쁨



배성민 교수 (강동대학교 교수)

배성민 교수는 현재 강동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에 있으며, 고려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이다. 태권도 공인 9단으로 실버태권도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시절, 고단한 삶 속에서도 국내외 경기에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선전하는 우리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며 느꼈던 긍지와 자부심으로 인해 우리는 스포츠의 긍정적인 면이 생활 속에서 작동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종목을 선택하고 실제로 참여하는 것 또한 매우 유의할 것이다. 조화를 이룬 스포츠관람과 실제 신체활동의 참여는 잘 정렬된 두 축의 바퀴와 같아서 서로를 보완하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일상에서 생활의 활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적극 권장할만하다. 실제로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50세 초에 머물던 우리의 수명이 현재 남녀 평균 82세 달하고 10년 후엔 85세에 달할 것이라 예상된다. 전 세계에서 유례

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단 기간에 급격하게 늘어난 평균 수명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적 충격을 주며 의료비 및 복지재원이 이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승되어 오롯이 젊은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삶의 방식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한 평균 수명의 연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10여 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지역 보건소에서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건강과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해 왔다. '비만 어린이를 위한 신체활동' 지도와 '중년여성을 대상

으로 하는 운동처방', '심혈관 질환자를 위한 맞춤 운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 · 정기적인 운동프로그램 참여가 신체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는가를 몸소 체험케 하고 그들 스스로가 꾸준히 운동을 즐기며 실천하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

그러던 중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2015년 2월부터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버태권도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 질환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 60명이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그분들의 평균 연령은 73세, 최고령자는 91세였다.

필자는 우리나라 고유의 무예이며 전신운동인 태권도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그분들의 질환을 완화시키고 자신감 회복과 더불어 삶의 활력을 주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있었지만 과연 몇 분이나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은 없었다.

나의 이러한 생각은 프로그램 개막일에 가서 기우인 것을 알게 되었다. 예상을 넘어 보건소 강당을 꽉 채운 60여명의 참여자들은 나를 놀라게 하였으며 그분들이 열의가 젊은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진지하여 나로 하여금 깊은 책임감을 더불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면 생체의 항상성 유지능력이 감소되어 신체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없게 되며, 병원체에 대한 방어기능이 감퇴되어 쉽게 감염되어 신체 구성성분의 노화에

따라 감각, 지각능력, 호르몬, 대사조직 감소, 피부 변화, 근육량 및 세포수가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각 장기가 위축되고 기능이 위축되므로 연령 증가에 의해 나타나는 노화현상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기적인 운동 참여자가 적고 더욱이 태권도를 접해 본 적이 없는 이 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 전에 지도한 대상자들과는 전혀 다른 연령대와 체력조건 그리고 운동이해능력이 낮은 참여자들을 계획대로 지도해 나가기 위해선 이분들에게 최적화된 태권도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곡을 편곡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실버태권도 전용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본격적인 태권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참여자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혈압과 혈액검사를 진행하였고 건강 관련 체력을 측정하기 위해 근력, 유연성, 근지구력검사 등을 하였다. 사후에 동일한 검사를 시행하여 프로그램 참여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운동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일 주일에 두 번, 그리고 한 번에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첫 달간은 도복을 착용하지 않고 간단한 운동복을 입고 스트레칭을 포함한 준비운동 후 기본 자세와 앞차기와 같은 기본발차기를 하며 태권도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에 태권도의 원리, 역사, 예절 등에 대해 강의도 병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국고사업으로 진행되는 까닭에 운동에 필요한 도복과 태권도화를 무상으로 지급받아 착용한 첫날, 실버태권도 단원들은 그 자체로 감격이었고 자신들이 전혀 생



각지도 못하고 가능하다고 여기지도 않던 종목인 태권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들은 이미 심혈관 질환을 떨쳐버린, 그런 모습이였다. 소외되고 위축되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난 젊은이의 모습이였다. 힘찬 기합과 동작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지도하고 있는 나 자신이 감격스럽고,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몇 번이나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엔 간단한 뒤로 도는 동작도 안 되어서 애를 먹던 분들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방향 변환을 자유롭게 하게 되고 보건소 2층 계단을 오르면서 한 두 차례 쉬면서 오시던 분이 발차기 운동을 통해 양발에 힘이 붙으면서 단숨에 올라올 수 있게 되었으며 혈당과 혈압이 매우 높아 고생하시던 분들이 정상치에 근접한 수치로 조절되어 감격스러워 하던 모습, “축 쳐져 있던 팔과 다리에 근력이 생겨서 일상의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좋아하시며 웃는 얼굴은 태권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서 얻은 소득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운동을 하면서 얻는 장점 중의 하나가 본인 스스로 건강해졌다고 느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분들은 이미 그 경지를 모두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잘 조화된 운동은 효과와 함께 재미를 느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실버태권도 프로그램은 운동 중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진행되기에 실버세대 참여자들에게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

땀에 흠뻑 젖은 도복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혈관 튼튼, 건강 백세!” 구호와 함께 하루의 운동이 끝나는 순간 모든 참여자들이 서로 간에 존경심을 담은 인사와 더불어 하이 파이브를 하면서 안면에 행복한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면 천국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연세 지긋한 분들이 태권도를 하신다는 것이 희

소성이 있고 신기하였는지 여러 축제에 시범을 요청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때마다 마음을 합쳐서 준비하여 이제껏 운동한 모든 것을 보여주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태권도의 기본 자세와 품새, 손날 송판격파, 겨루기, 점프하며 차는 이단 앞차기 격파 등으로 구성된 시범을 보여 수많은 분들로부터 진심어린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숨을 몰아쉬며 무대를 내려오며 환하게 웃는 노인 시범자들의 모습에선 해냈다는 자신감이 온몸에 가득했고 웅원 나온 가족에겐 멋진 부모이자 자랑스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가정에서 어른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련의 활동으로 주위의 관심을 받던 중 지역 KBS TV에서 소개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왔다. 우리의 평소 운동 장면을 촬영해 10분 정도 분량의 실버태권도가 TV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주위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

“평생 살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거나 자신이 주님에게 받은 달란트를 이렇게 의미 있게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TV 방영은 첫 해인 2015년에 이어 2016년, 2017년에도 연속 이루어져 실버태권도 참여자들은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으며 이 분들의 기량도 일취월장하여 처음에 예상하였던 기대치를 이미 넘어선 단계까지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8주에서 12주를 기한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실버태권도 프로그램은 첫 해 40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 후 참여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2017년 까

지 3년간, 연 40주의 장수프로그램이 되다보니 나에게도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고 그것은 바로 참여한 모든 분들이 승단심사에 응시하게 해서 유단자가 되는 것이다.

태권도를 비롯한 무도 종목은 승·단급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목적은 수련자 자신이 수련한 것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실버태권도 참여자들도 3년 동안 열정을 다해 수련하였던 것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평가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나도 승단심사 단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간 하루하루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이루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니 모든 일이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선을 이루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2015년에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한 팀이 되어 운동의 효과와 즐거움을 함께 하는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 종료 전에 승단 심사를 시행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한마음으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2017년 10월에 승단 심사에 합격하여 유단자가 된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실버태권도 참여자들은 다시 한 번 도복 띠를 고쳐 매고 수련에 집중하게 되었다.

대부분이 70대 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심에 대해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93세로 최고령 참여자인 한종상 옹이 계시기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분은 다른 분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준비운동을 한 후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빠짐없이 연습을 하는데 동작 하나 하나가 정확하고 힘과 절도가

있어 20세 정도 어린 분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과묵한 탓인지는 몰라도 이 분이 승단심사에 합격한다면 최고령 입단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 하나가 기억력의 감퇴인데, 막고 차고 지르는 공격과 방어 동작을 자연스레 연결시켜 놓은 품새의 순서를 잊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 연습하여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첫 품새인 태극 1장을 가장 힘들게 한 이유는 품새를 처음 배우는 이유도 있겠지만 공간지각능력과 몸의 기억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수많은 반복 끝에 1장을 숙지하고 나서는 훨씬 짧은 시간 내에 더 복잡한 동작이 포함된 상급 품새를 무리 없이 수행해 나가는 것은 그만큼 체력과 인지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운동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서로 격려하며 승단심사까지 이른 참여자들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고 그 자신감은 심사 당일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하여 우리가 이제껏 연습하던 강당에서 심사를 진행하기에 그분들에게 “평소에 하던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강조하였고 이 당부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였기 매우 만족할 만한 심사가 되었다.

심사 중 심사위원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잘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국기원에 알려 지원 방안을 건의하겠다”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계속 동영상 촬영을 했다.

“태권도가 실버세대의 건강과 생활의 활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프로그램의 확대 및 다변화방안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하면

서 최선을 다해 심사에 참여한 응심자들을 격려해 주었다.

심사 한 달 후 우리 실버태권도 참여자 전원이 합격 통지를 받고 단증 수여식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 분들로부터 “그 동안 태권도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다.

“오늘 받은 단증을 액자에 넣어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세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대부분 거실 중앙에 걸어두고 “이웃과 손자 손녀에게 자랑하고 있다”며 즐거워했다.

노인 연령에서 3년이란 세월이 흐르면 그 만큼 체력이 저하되고 건강지수가 낮아지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사후 검사를 통해 확인 한 이분들의 의학적 상태와 체력수준은 3년 전보다 월등히 향상된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운동의 효과에 대해 나와 참여자 공히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분들은 보건소의 배려로 같은 장소에서 매주 모여 함께 태권도를 연습하고 있으며 시간을 내서 매월 한번 정도는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3년 간의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운동경기에 대한 책갈피



송인규 소장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학생회(IFV)의 총무 및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있다

연일 동계 올림픽에 대한 광고를 본다. 굳이 올림픽까지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운동 경기와 프로 스포츠에 대한 국민 모두의 열의와 관심은 (좀 비관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광분의 수준에 이른 듯하다.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각종 운동 경기 및 이에 연관된 문화 현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을 보유해야 할까? 스포츠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은 어때야 할까? 좌우간 이것이 이번 책갈피가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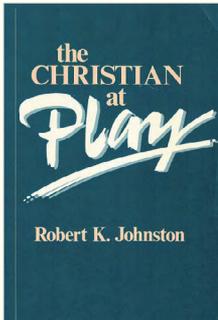
역시 문제는 이 주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성찰이 문자 그대로 전무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 주제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아프리카 크리스천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팽플릿 수준이나마 이 주제에 대한 안내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¹

(그것도 50년 전인 1967년에!) 아직까지 필자는 스포츠에 대한 한국인 크리스천의 글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이 말의 의미인즉, 이번 책갈피도 다른 나라 저자들의 책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¹ A Group of Christians at King's College, Budo, Uganda, The Christian and Sport (Achimota, Ghana: Africa Christian Press, 1967), pp. 1-24.

책 소개에 앞서 용어 정리부터 하자. “놀이”(play)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대상을 그 자체의 가치 때문에 창의적으로 즐기는 비체계적 활동”이다. 놀이에 규칙이 더해지고 (사람이 많을 경우) 팀이 구성되면 “경기”(game)가 된다. 스포츠(sports)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운영 규칙이 보편화되고 경쟁이라는 요소가 추가된 경기를 말한다. 이렇듯 스포츠는 인간의 가장 원형적인 활동인 놀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Robert K. Johnston, *The Christian at Play*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3).

가장 먼저 소개할 책은 놀이에 관한 기독교적 성찰서이다.

존스톤(Robert K. Johnston, 1945-)은 이 책의 저술 당시 노스파크 신학원(North Park Theological Seminary)의 <신학과 문화> 과목의 교수로 재직했고, 1993년 이레 풀러신학원에서 역시 <신학과 문화>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화 관련 전문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영화와 영성」(2003년 IVP 간), 「영화관에서 만나는 기독교 영성」(일부)(2007년 살림 간) 등의 책이 번역되었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 현대인이 직면한 문제

제 2 장 놀이: 정의의 사안

제 3 장 놀이: 세 가지 신학적 선택안

제 4 장 놀이: 성경적 모델

제 5 장 일: 놀이와의 관계

첫째 장에서 존스톤은 현대인들이 여가와 관련해 나타내 보이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일 중심의 가치 체계에 빠진 현대(미국)인에게 “놀이”의 경험이 해결의 단초가 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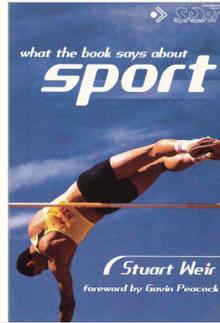
그러면 놀이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이 둘째 장에서 전개된다. 존스톤은 놀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며 대신 특징을 몇 가지 열거한다. 놀이는 우선 시간과 공간에 있어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 낸다. 개인적 자유가 중시되고 공동체 지향적이다. 또 즉흥적이되 계획/설계의 측면이 도외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실용성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생산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장에서는 놀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대표적 주창자들의 견해가 소개된다. 우선 철학자/종교학자인 샘 킨(Sam Keen, 1931-)은 놀이라는 현상을 개인적 치유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반면 몰트만(Jürgen Moltmann, 1926-)은 자신이 주창하는 희망의 신학(및 해방의 신학)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놀이를 채택한다. 이 두 학자는 놀이를 다른 것의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놀이의 진면목을 짚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놀이에 대한 통찰력은 놀랍게도 전문 신학자가 아닌 이들에게서 발견된다. 우선 피터 버거(Peter L. Berger, 1929-2017)는 사회학자로서 놀이가 세속화된 오늘의 사회 속에서 “초자연적인 것의 신호”(signals of transcendence)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기초만으로는 신학이 수립될 수 없고, 놀이 경험 또한 그 의미가 감축된다. 바로 여기에 루이스(C. S. Lewis, 1898-1963)의 놀이 경험이 중요한 연결고리로 등장한다. “기쁨”이라 불리는 이 경험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접수하는 통로가 된다.

4장은 이 책의 클라이맥스에 해당이 된다. 지금까지 교회는 놀이에 대한 접근에 있어 회랍적 모델 [일을 반대하기 때문에 놀이를 귀하게 여기는 견해]이나 프로테스탄트적 모델 [일이 놀이에 반대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견해]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곤 했다. 그러나 존스톤은 여기에 제3의 길인 히브리적 모델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 모델은 놀이와 일의 균형 잡힌 모습을 강조한다. 존스톤은 이러한 견해의 근거로서 (1) 안식일 휴식에 대한 논의에서 이야기되는 바, (2) 전도서가 제공하는 충고의 근본이 되는 바, (3) 아가서의 성 묘사에 편만히 나타나는 바, (4) 축제, 춤, 잔치 및 나그네 접대에서 행동화되는 바, (5) 예수님의 우정이 갖는 패턴에서 중심인 바를 열거한다.

5장은 일과 놀이 사이에 균형이 잡혀야 할 필요를 이야기하고 결론에서 그런 모범적 인물로서 본혜퍼(Dietrich Bonhöffer, 1906-1945)를 내세운다.



Stuart Weir, *What the Book Says about Sport* (Oxford: The Bible Reading Fellowship, 2000).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츠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자.

저자인 위어(Stuart Weir)는 스포츠 관련 작가이기도 하고 토고, 우크라이나, 파키스탄에서의 스포츠 개발 프로젝트에 자문 역할도 맡았다. 영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진 Christian in Sport 단체의 대표[1990-2006년]를 지냈고, 2006년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비슷한 스포츠 선교 단체인 Verité Sport의 실무 대표자로 봉사하고 있다.

이 책자는 전문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썼다. 총 9장으로 구성된 책자의 구성구석은 스포츠맨들의 경험담과 그들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로 가득 차 있다. 9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 장 스포츠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 제 2 장 스포츠 신학의 정립을 위하여
- 제 3 장 시간 사용을 유익하게
- 제 4 장 크리스천 스포츠맨 - 모순된 용어?
- 제 5 장 하나님은 누가 이기는지에 관심을 가지시는가?

제 6 장 주일에는 결코 안 되는가?

제 7 장 스포츠계를 그리스도께

제 8 장 스포츠와 개별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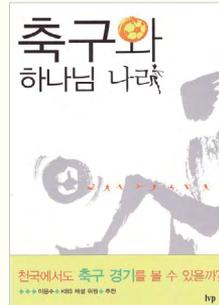
제 9 장 주요한 스포츠 이벤트

1장은 스포츠의 정의와 성경에 나타난 스포츠 관련 구절들을 소개한다. 2장은 창조-인간-타락-심판-구속이라는 다섯 가지 표제 하에 스포츠에 대한 설명을 성경 신학적으로 시도한다. 3장은 스포츠 활동과 교회 봉사가 시간 사용의 면에서 야기하는 갈등의 문제를 논한다.

4장은 스포츠 활동에 연관한 몇 가지 사항 - 일요일 경기, 경쟁심, 승리, 교회 봉사와의 마찰 등 - 이 기독교 신앙과 조화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다. 5장은 운동 경기에서의 승패 문제를 현실감 있게 논하고 있다. 특히 6장에서는 대부분의 경기가 주일에 시행되는 현실을 앞에 놓고, 그리스도인 스포츠인들로서 어떤 방침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한다.

나머지 마지막 세 장은 스포츠 사역에 대한 것이다. 7장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전도 사역을 논하고 있고, 8장은 개 교회 단위에서 어떤 사역 프로그램을 채택할 수 있을지 제안을 하는가 하면, 9장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

이제 다음 책자로 넘어가자. 비록 스포츠를 전반적으로 논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의 각도에서 스포츠를 조망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번역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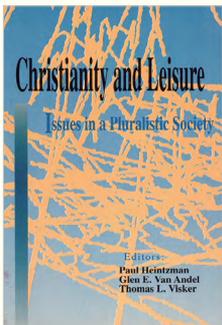
마크 로크스 지음, 김종호 옮김,
「축구와 하나님 나라」(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6).

로크스(Mark S. Roques)는 과거 11년 동안 프라이어 파크 대학(Prior Park College)에서 철학과 종교학을 가르쳤다. 그는 뛰어난 이야기꾼으로서 영화·음악·스토리텔링·드라마를 융합한 기독교 세계관 코스를 개발했다. 현재는 프리랜서 작가로서, 서부 요크셔 기독교 학교(West Yorkshire School of Christian Studies)에서 튜터 역할을 하고 동시에 RealityBites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기독교 신앙의 전달법을 소개하고 있다. 2009년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기독교 교육의 맥락에서 자신의 가량을 마음껏 선보이기도 했다.

대학에서의 철학 전공과 졸업 후 교직 과정의 이수가 그의 경험 세계 형성에 기여했지만,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기독교 학문연구소(Institutes for Christian Studies)에서의 3년 간 수학이었다. 이때 그는 도예벨트의 철학에 입문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의 사상과 재능, 관심사가 함께 잘 녹아 있는 책자가 바로 「축구와 하나님 나라」이다. 이 책의 원제는 Fields of God: Football and the Kingdom of God으로서 “하나님의 경기장”이라는 표현이

우선적이다. 기독교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스포츠 [특히 축구]에는 열광하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지에 맞추어 기독교 신앙의 요체를 전달하려는 것이 이 책의 일관된 관심사이다. 결국 이 책자는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마이클 고힌 공저의 「성경은 드라마다」와 알 윌터스의 「창조·타락·구속」 내용을 축구라는 토픽을 중심으로 매우 흥미롭고 알기 쉽게 풀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점은 축구 경기가 완성될 천국에서도 여전히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에 소개할 세 권의 책자들은 스포츠에 대한 중요한 자료이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글을 집대성한 형태의 문집이다.



Paul Heintzman, Glen E. Van Andel, Thomas L. Visser, eds., *Christianity and Leisure: Issues in a Pluralistic Society* (Sioux Center, Iowa: Dordt College Press, 1994).

이 논문집은 1989년 여름 칼빈대학교에서 체육 교육, 여가 연구, 캠핑 관련 분야의 기독교 전문가들이 모여 여가 및 유관 분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것이 본체가 되었다. 다섯 분야에 걸쳐 총 20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다섯 분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부 성경적·역사적 관점들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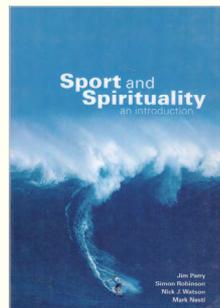
제 2 부 방법론적 이슈들 (2개)

제 3 부 여가에 있어서 현재의 행습들과 도전들 (5개)

제 4 부 놀이, 스포츠 그리고 운동 경기 (7개)

제 5 부 여가와 문화 (3개)

제 4 부가 특히 스포츠와 연관되지만, 실은 나머지 논문들도 꽤 적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Jim Parry, Simon Robinson, Nick J. Watson, and Mark Nesti, *Sport and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07).

그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4인의 공저로 되어 있다. 짐 패리(Jim Parry)는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의 철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는 철학 공부 후에 체육 교사와 코치로 일했다. 사이몬 로빈슨(Simon Robinson)은 리즈 코즈모폴리탄 대학교(Leeds Cosmopolitan University)의 응용 윤리학 교수이다. 그는 정신과 전문의 사회 사업가였다가 영국 교회의 사제로 안수 받은 후 대학의 교목이 되었다. 닉 왓슨(Nick J. Watson)은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York St. John University)의 보건 생명 과학 분과에서 스포츠 심리학 및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또 스포츠학과 동시에 신학을 전

공했기 때문에 스포츠 및 종교의 통합 과정을 가르치기도 한다. 마크 네스티(Mark Nesti)는 요크 세인트 존 대학교에서 스포츠 심리학 강사로 일하면서 스포츠 관련 이슈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가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책자는 4부로 나누어지고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4부의 제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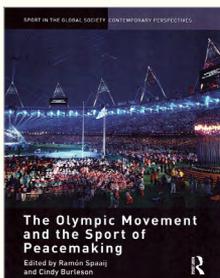
제 1 부 스포츠와 영성

제 2 부 종교와 스포츠

제 3 부 실존심리학(existential psychology)과 스포츠

제 4 부 윤리, 올림픽 정신(Olympism) 및 영성

세 번째 책자는 종교적 색채가 전혀 없는 일반서적이다.



Ramón Spaaij and Cindy Burleson, eds., *The Olympic Movement and the Sport of Peacemaking* (London: Routledg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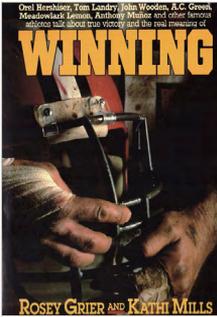
이 책은 루트리지 출판사가 기획한 Sport in the Global Society: Contemporary Perspectives (Senior Editor: Borin Majumdar) 시리즈 [45권] 가운데 한 권이다.

라몬 스파아이(Ramón Spaaij)는 호주 라 트로브 대학교(La Trobe University) 소속 사회 과학 학교의 선임 연구원이고, 신디 벌리슨(Cindy Burleson)은 미국 미시시피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고아 후원 단체 International Sibling Society의 의장이다.

이 책자의 특징은 올림픽 운동(Olympic movement)과 스포츠 평화 정신(sport of peacemaking)을 접속시킨다는 데 있다. 이 책의 11가지 글들은 원래 스포츠 학술지인 Sport in Society, Vol. 15, Iss. 6 (September 2012)의 게재물이었다. 이 글들 가운데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다섯째 글 Darin H. Van Tassel and Dené A. Terry, “An overlooked path to peace and stability: sport, the state and the case of the Koreas”이다. 이 논문은 특히 하계도 한국의 실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스포츠에 임하는 매너가 남북 간의 정치적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벤 테슬(Darin H. Van Tassel)은 미국 조지아주 조지아 남부 대학교의 국제 관계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 테리(Dene A. Terry)는 조지아 대학교 법대의 교수이다.

끝으로 소개할 두 권의 책자는 크리스천 운동 선수들의 간증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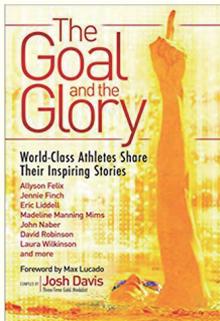
그라이어(Rosey Grier)는 유명한 축구 선수이고 그의 아내 밀즈(Kathi Mills)는 프리랜서 작가이다. 이 두 부부는 38명의 유명한 미국 선수들 -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육상, 스케이트, 테니스 -로



Rosey Grier and Kathi Mills, *Winning* (Ventura, CA: Regal Books, 1990).

부터 승리(winning)가 무엇인지 들은 바를 간증 형식으로 정리했다.

또 한 권은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하되 간간히 다른 나라 운동 선수들의 영감 넘치는 이야기를 모은 것이다.



Josh Davis, compiled, *The Goal and the Glory* (Ventura, California: Regal, 2008).

이 내용의 편찬자인 데이비스(Josh Davis) 자신이 수영 분야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세 번이나 획득한 인물이다. 이 책자는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제 1 부는 목표들(goals)이라는 표제 하에 12명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제 2 부는 속 사정들(Guts)이라는 원색적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6명의 선수들이 그들의 실망, 두려움, 배

척감, 시험, 기쁨 등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제 3 부는 영광(Glory)으로서 15명의 선수들이 좀 더 원숙한 신앙적 목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동계 올림픽이 코 앞이다.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경기만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라는 문화 현상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고군분투까지도 읽어 내어야 할 것이다. 

WORLDVIEW

Book & Culture

밀양으로 간 벤허



남정욱 교수 (송실대학교)

작가, 출판 영화 방송 등 문화부문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송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지은 책으로는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현대사', '결혼' 등 다수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선악의 구별이 불분명해진다. 확신하던 것도 따져보고 뒤집어보면 다른 게 보인다. 그래서 젊다는 건 선악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선악이 분명할 때는 이런 말을 한다. 용서는 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불분명해진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 용서 절대 못한다. 그런데 자주 잊는다. 얼마 전 영화 '벤허'를 봤다. 2016년에 리메이크한 신상(新商) '벤허' 말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1959년 '벤허'다. 멧살라와의 전차 경기 다음은 주인공인 벤허가 문둥이가 된 어머니와 누이를 찾아 나서는 내용이다. 어머니와 누이를 데리고 신의 은총을 바라는 마음에 길을 나서지만 이미 예수는 십자가형

을 선고 받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중이다. 넘어진 예수에게 벤허는 물 한 바가지를 건넨다. 최소한의 친절이 사마리아 병사들에게 제지당하는 순간 벤허는 예수의 얼굴을 본다. 평온하다.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가는 얼굴이다. 벤허는 당황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저들을 용서하라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사면을 빈다. 그것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던 벤허의 마음에서 칼을 빼앗는다. 그 시간 어머니와 누이의 문둥병이 낫는다. 영화 속에서는 성혈(聖血)의 기적으로 나오지만 나는 다르게 봤다. 애초부터 어머니와 누이는 문둥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벤허의 증오심과 분노가 만들어 낸 허

상이다. 그 허상이 사라지는 순간 어미와 누이는 본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벤허는 허언증 환자였다. 노예 선에서 죽음을 맞대고 노를 젓는 사이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미와 누이가 문둥병에 걸리는 일련의 가상현실이 펼쳐진 것이다. 결국 마음이다. 선악도 마음속에 있다. 영화 속의 벤허는 어린 아이다. 과거의 기억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현재로 끊임없이 연장하는 철부지다. 그에 비하면 폰티우스 빌라투스나 멧살라는 어른이다. 그들은 세상을 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하찮고 짧은지 그리고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선악의 구별 같은 건 없다는 사실도 그들은 안다.

유대 땅에 벤허 어린이가 있다면 멀리 한국 땅에는 이신애라는 인물이 있다. 기억력 좋은 분이라면 신애라는 이름이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의 여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셨을 것이다. 피아노를 전공한 신애는 예술 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풍부한 바로크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좋은 얘기 아니다. 그냥 멘탈이 심히 불안정하다는 의미다) 남편의 사망 후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예닐곱 먹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내려온다. 그녀는 좋게 말하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나쁘게 말하면 사회화 진행이 덜 된 여자다. 그래서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데 일가견이 있으며 그 사실을 자기만 모른다. 신애의 병증은 하나 더 있는데 자신의 그런 결핍을 주변 사람들을 '속물'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속물이 아닌가. 천만에다. 은행 잔고라고는 870만원 밖에 없는 주제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디 괜찮은 땅 없냐고 물어보는, 시쳇말로 허세 '찌는' 여자다. 신애의 아들이 유괴된 끝에 죽는다. 신애 때문이다. 그녀는 부풀려 말했고

사람들은 신애가 돈 좀 있는 여자로 알았으며 마침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은 돈이 필요했다. 자신의 허위가 아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신애는 이해하지 못한다.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신애 앞에 나타난 게 교회와 개신교와 하나님 '아버지'다. 신애는 하필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혐오를 품고 있는 여자다. 좋은 만남이 아니다.

사람들은 '밀양'을 반반기독교 영화 최소한 비반기독교 영화로 기억한다. 감독의 유물론적 취향을 고려하면 심증은 확신이 된다. 그럼 '밀양'은 정말 반기독교 영화일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특히 지력이 딸리는 사람이 뭔가를 노리고 의도한 일은 사뭇 다른 결과로 나타나기 십상이다. '밀양'이 딱 그렇다. 일단 영화적인 공식에서 '밀양'은 함량미달이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다하게 노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숨겨 놓아 스쳐 지나가는 듯해야 마음에 꼭 박힌다. 그리고 영화의 모든 장면과 대사는 중의(重義)적일 때 고급이 되는데 '밀양'의 반기독교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일차원에 지겨울 정도로 반복이다. 관객들은 지루한 것을 싫어한다. 덕분에 감독의 메시지는 급격하게 허약해진다. 일차원에 질린 관객들은 새로운 시선으로 장면들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영화가 감독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아이는 죽고 자기는 죽고 싶은 신애에게 약국 이준마는(교회 권사 짬 되 보인다) 세상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약국 귀퉁이 한 줄기 햇살을 가리키며 저 햇빛 한 조각에도 주님이 뜻이 있다고 말한다. 신애는 반발한다. 뭐가 있냐며 그저 햇빛일 뿐이라고 냉소한다. 햇빛과 햇별은 다르다. 햇

빛은 보이는 거고 햇빛은 느껴지는 거다. 그 따뜻함에 대한 이해 부족은 영화 내내 신애에게 신앙과 평행선을 달리게 한다. 약국 아줌마는 근처에서 부흥회를 한다며 그녀에게 꼭 필요할 것이니 한번 가보라고 권한다. 마음 붙일 곳 없는 신애다. 부흥회에 간 신애는 가슴을 잡고 오열한다. 다 큰 어른이 소리 내어 울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 속에 맺힌 것을 토해내는 신애의 울음은 처절하다(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노래방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신애는 기독교에 귀의하지만 그녀의 허위는 신앙에서도 여전하다. 가짜 신앙이다. 신애는 들떠 있다. 그녀는 수시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다고 자랑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웅변학원 원장을 용서하겠다고 동네방네 떠돌고 다닌다. 진짜 그럴 생각이 있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조용히 혼자 가는 게 맞다. 그녀는 마음의 평안과 신앙을 자랑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의 죽음 → 종교 귀의 → 마음의 평안 → 원수의 용서로 가는 자신의 그림을 완성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일은 참 뜻대로 안 된다. 용서하러 갔는데 그 찢어죽일 죽일 놈이 자기도 이미 회개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했다며 신애를 신앙의 동지로 여기는 발언을 해 대는 것이다(웅변학원 원장이라 그런지 참 말도 설득력 있게 잘 한다). 그 한마디에 신애의 그림은 깨지고 그녀는 무너진다. 용서에서 실패한 신애가 선택한 건 복수다. 신애가 교회와 신애에 대해 벌이는 복수는 엽기적이다. 당연하다. 신애는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사랑으로 위장하면서 심각하게 인지부조화상태다. 인지부조화는 허위진술과 다르다. 허위진술은 남을 속이는 게 목적이지만 인지부조화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다. 그 인지부조화를 자신에게 들켰을 때 혹은 깨달았을 때 그 반발은 극단적이고 격렬해진다. 신애는 교회의 야외 집회에서 김추자의 노래 '거짓말이야'를 트는가 하면 약국 아줌마의 남편인 장로를 유혹한다(성적인 유혹에 단련되지 못해 복수극에 휘말린 장로님은 대체 뭘 죄란 말이나). 그러는 내내 신애는 신을 조롱하듯 하늘을 올려다보며 "보이니? 잘 보여?" 이죽거린다. 그녀는 여전히 신의 존재를 햇빛으로만 여기고 있다.

신애는 마지막 도발로 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자해를 선택한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논리적인 선택이다. 피조물이 창조자에 대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처럼 멋진 복수는 없으니까. 이때도 신애는 또 잘 보이냐는 소리를 해 대며 관객을 질리게 만든다(감독은 연출이라는 걸 아예 포기한 것 같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붉은 피를 바라보던 신애의 입에서 난데없는 말이 튀어 나온다. "살려주세요." 영화에서 신애가 진심을 말한 건 이때가 처음이다. 그녀는 진즉에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절박한 다음에야 구원도 있는 법이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신애는 머리를 자르러 간 미용실에서 유괴범의 딸을 만난다. 소년원에서 미용기술을 배워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 딸이 신애는 싫다. 가위질 몇 번 만에 신애는 미용실을 뛰쳐나오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자신에게 지옥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신의 존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자기가 사랑해야 할 원수는 감옥에 있는 웅변학원 원장이 아니다. 아버지의 죄과로 평생을 짓눌리고 살아야 할 그 딸인 것이다. 용서와 사랑을 위해 신애에게 딸을 보낸 것을 알기에 그녀는 아직은 어리다. 희망의 단서는 다음 장면에서 나온다.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면 장사가 잘될 거라



전도연 송강호·이창동

2007년 5월, 당신에게 옵니다 제공매금 (주) 시네마서비스 제작 와이너하우스필름 (주)

출처: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 (2007)

카락은 버려야 할 낡은 것인 동시에 자신의 분신이기 때문이다. 신앙이라는 게 격렬한 회개나 거창한 구원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당한 따뜻함이라는 사실을 신애는 어렵פות이나마 알게 된 것일까. 그나저나 이쯤 되면 대체 감독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헛갈리기 시작한다. 분명 반기독교 영화를 기획했음에도 영화는 전혀 다르게만 읽히니 말이다. 당장 신애라는 이름만 해도 그렇다. 사람 이름으로야 보통은 신애(信愛)를 쓰겠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신애(神愛)로 들린다. 영화 포스터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무엇이 보이시나. 밀양이라는 글씨에서 보이는 건 사람의 옆모습이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secret sunshine이다. 따뜻함을 불어넣는

는 신애의 충고를 고깝게 들었던 양품점 여주인이 뛰어나와 반갑게 신애의 손을 잡는다. 신애의 말대로 했더니 진짜로 매출이 늘었다며 한턱 쏘겠다고. 언제나 세상과 얽은 막 하나를 치고 살던 신애다. 신애는 세상에 다가가지 않았고 세상도 신애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양품점 여주인의 고마움이 그 막을 허물어버린다. 지어내지 않은, 밝게 웃는 신애의 표정 역시 이 영화에서 처음이다.

집에 돌아온 신애는 거울을 앞에 놓고 직접 머리를 자른다. 툭툭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바람에 떠밀려 햇볕 고인 마당 한 구석으로 슬금슬금 몰려간다. 그것은 신애의 심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머리

누군가의 입김과 아직은 응달에 앉아 있는 신애의 모습에서 우리는 절대자의 섭리와 구원의 가능성을 본다. 그 질감은 따뜻함이다. 햇볕이 잔잔히 내려쬐는 영화가 어떤 것인지 '밀양'은 역설을 반복해가며 보여준다. 

공동체와 예술



이용배 교수 (국민대 교수)

서울대학교와 파리1대학 팡테옹소르본에서 공부하였고 국민대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다. 국내외에서 16회 개인전, 133회의 단체전과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 공공미술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공부 모임인 <창조 창작 회복>과 <인문학과 성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원이다.

예술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유별난 데 이들의 내면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 이들은 너무 독특해서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질 때도 종종 있다. 사실 예술가는 남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자체를 가치로 여기기도 한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

예술가는 창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나와 같은 미술가는 자기의 생각을 조형 언어를 통해 나타낸다. 예술가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말이 생긴 것이 바로 이들이 기존의 여타 장치에 의해 억압당하거나 구애 받고 싶

어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예술가들이 교회 공동체 안 밖에서 적응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교회 안에서 예술가들은 그 자유로움 때문에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고 반면 교회 밖 예술가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으로 분류된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이런 딜레마에 직면하여 산다. 현대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사회와 교회의 사이에 끼여 오도 가도 못하지만 놀랍게도 여기에 숨겨진 믿음의 비밀이 하나 있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교회와 교회 밖 예술계에서 모두 밀려나 있는 것 같지만 둘 사이를 잇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피 많



제목: 공동체, 스테인리스 스틸, 320 x 250 x 185cm, 2015년 / 이웅배

은 예술품이나 예술적 행위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게 생각하고 더 자세히 바라보게 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을 나만을 위한 신앙 혹은 우리만을 위한 신앙으로 규정해버린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 분을 우리 교파나 민족, 국가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성숙한 신앙이란 나만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물론이요 타자(他者)의 하나님으로도 믿는 것이니 그분을 만유(萬有)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한다. 나는 예술가의 자유로운 사고와 태도가 이런 통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나 고향으로 갈 수 없는 부모님의 슬픔을 보고 자라면서 교류와 변화 그리고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 혹은 연결에 대

하여, 동시에 소통의 길이 막힌 장애와 그 고통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전쟁 이후 우리가 사는 땅에는 극단적인 정치적, 군사적 대립이 여전히 계속되면서, 경제발전과 안보라는 거대담론이 개인의 다양하고 유연한 의사소통을 억압할 때가 많았다. 나는 청년 시기에 세계 곳곳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통을 철조망, 콘크리트 등으로 표현하곤 했다. 그러던 중 결혼과 가정생활을 통해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남녀가 가정을 이뤄 아이를 낳고 양육하며 어울려 살 때 소통의 장애와 고통을 넘어서는 조화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나는 동일자와 타자가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이질적인 상대방을 자발적이며 보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가치가 옳다고



제목:공동체, 스테인리스스틸, 108 x 235 x 90, 108 x 235 x 90cm, 2016년 / 이웅배

여긴다.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이런 생각을 구불구불한 배관의 곡선과 다양한 색으로 이뤄진 형태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조각가인 나는 작품을 제작할 때 온몸으로 재료와 접촉한다. 창작 과정에서 작가가 재료를 이리저리 굴리는 것은 물론이요 쓰다듬거나 두들기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왜냐하면 3차원의 예술인 조각은 시각적인 효과 뿐 아니라 촉각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관객이 내 작품을 감상할 때 만지도록 허용한다. 이것은 관객이 시각과 더불어 촉각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손으로 어루만지면 존

재하지 않던 음악이 표현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촉각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존재하는 무게, 부피, 질감 등에 의해 형성되는 비가시적인 것들을 만나게 한다. 나는 관객이 단순히 시각적인 세계에 속박되지 않고 보이는 것의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를 만났으면 좋겠다. 

“고통, 빛의 시간”



최총희 (작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에서 사모로 섬기다가 2000년 미주 교양지 《광야》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는 은퇴한 남편과 함께 영구 귀국해 여수에서 살면서,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심리치료를 공부하며 상처 입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길어야 6개월이라는 뼈암 사망선고를 받고 주변을 정리하는 2주의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지인의 도움으로 저명한 뼈암 전문 의사를 다시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제 MRI 사진을 면밀히 살펴보다니 진단의 정확성을 위해 척수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검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사항에 대한 설명서에 사인을 한 후,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실 안에는 긴 바늘들이 달려 있는 커다란 기계가 천정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뻗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차가운 공기가 제 마음까지 얼어 붙게 만들었습니다. 척추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장애가 올

수도 있다는 위험한 검사를 받기 위해 엎드려 기다리던 그 때, 저는 앞날에 일어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순간, 형용할 길 없는 평안이 제 안에 고이기 시작했고 저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수술을 앞둔 성도를 심방할 때마다 들려주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명료히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했지요.

척수검사 결과, 제 병은 뼈암이 아닌 '넢 호지킨 스 라지 비셀 림포마'라는 병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악성 림프종이라 합니다. 이 암은 급격히 진행되는 것으로 림프종의 유형 중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저는 척추 속을 비롯해 전신에 퍼진 4기였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영락없는 뼈암 말기였는데 척수검사를 해보니 림프종 4기라는 것이었지요. 의사는 뼈암이었다면 가망이 없었지만 림프종은 약물에 반응만 한다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학치료를 받으면서 투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들이 흔히 그러하듯, 저도 약물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말초신경 문제로 잘 걷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수면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면역력 저하로 감염이 잦았고, 단위가 높은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인해 보름달처럼 통통 부은 얼굴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야아! 우리 집은 승려랑 목사가 한집에서 사이 좋게 사네, 그러?” 민둥산인 머리에 눈썹이 빠져서 밋밋하고 전체적으로 이상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제게 남편이 던진 한마디.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해주고 싶어 제게 던진 남편의 유머입니다.

치료의 횟수가 더해 갈수록 몸은 그만큼 힘들어 졌지만, 육신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 영혼의 기쁨까지 빼앗아 가지는 못했습니다. 주중에는 집으로 여성도들을 초대해 '내 인생의 남은 한 달'이라는 책을 교재로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투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님들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저를 응원해 주셨고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가득 담긴 카드와 편지들,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격려의 메일들, 배달되어 온 꽃다발, 건강을 생각해서 조리한 특별한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눈물로 간구한 뜨거운 기도가 저에게는 분에 넘치는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 힘입어 힘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고, 완쾌된다는 확실한 약속은 없었지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며,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 기간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또 하나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육신의 병뿐 아니라 제 영혼의 병도 보여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자라고 있는 무서운 암 덩어리들을 저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들추어 내셔서 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수술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치료 과정을 모두 마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 제게 느닷없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는 그칠 수 없는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로운 빛 가운데 드러난 영혼의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제 영혼의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요.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 냈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이젠 두려울 것이 없다고 믿음의 용사라도 된 듯 들떠 있는 그 때에, 성령님께서 보여 주신 제 모습은 정말 의외였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섭게 번식하여 자라고 있는 영혼의 암덩어리를 빛으로 드러내셔서 그 실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 이름을 지닌 중증의 병이었습니다. 교만과 자아 성취 욕구라는 암세포,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인 신앙 행태, 특권의식과 이중성이 농후한 바리새인적 병세...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영혼의 암 덩어리가 제 영혼에 파리를 들고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차 없이 들추어 내셔서 치료해 주시는 시간. 저는 제 육신을 갹아먹고 자란 암뿐 아니라 제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진을 치려 했던 암세포들까지, 오랜 시간 대수술을 받으며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무용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그래서 도와 주셔야 살 수 있다고 늘 투정부리듯 기도해 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유용하고 쓸모 있어 보이는 존재가 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 왔는데, 사실은 그 동기가 제 존재의 유용성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어디론가 숨고 싶을 정도로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동안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100퍼센트인 하나님의 은혜를 갹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나의 체험이, 신앙 연륜이, 나의 기도와 성경 지식, 선행과 노력과 헌신이 30퍼센트, 60퍼센트, 80퍼센트로 자라나, 어느 순간 나의 의가 나를

구원하고 있노라고 아주 엄청난 착각을 할 뻔한 것입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죄악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유용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신에 대한 무용성을 절감함으로 하나님은 비로소 인간 자신의 유용성을 훨씬 넘어서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다는 깨달음. 이 사실을 머리로가 아닌 삶으로 체험했던, 아프고 부끄럽지만 제게는 꼭 있어야 할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과분한 선물이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과 공감하는 고귀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소음을 종식시키고, 고독의 깊은 심연에서 십자가상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신음소리를 듣는 시간...

고통은, 제게 그런 귀한 체험이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 119:71-72).



* 홍성사 「희망 온 에어」의 일부를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 실었습니다.

삶을 위한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2)



이우제 목사 (백석대학교 교수)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대학원 원장이자 실천신학(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하고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Th. M)과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학위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음성을 밝히는 설교를 꿈꾸는 설교학자이자 설교자이다. 저서는 「테마가 있는 설교」(대서)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내러티브 설교 형식 개발」(공저, 대서)가 있다.

들어가는 말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편견과 오해의 책이었다. 요한계시록은 이전의 65권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주제나 내용을 다루는 책이거나 혹은 종말에 대한 별책 부록(別冊附錄) 정도로 다루어 왔다. 과연 그럴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요한계시록은 이전의 성경에 대한 이질적인 신사상(?)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65권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요약과 확증을 통한 성경의 거대한 드라마의 완성을 보여주는 책이다. 글을 쓸 때 결론의 금기 사항 중에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대단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철칙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성도들을 미혹과 혼란의 지대로 이끌고 가고 있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제시하는 것을 본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를 베리칩(veri chip)과 연결하여 베리칩을 받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지옥에 가게 된다는 주장 같은 것이다. 65권의 믿음을 통한 은혜로의 구원론이 자취를 감추고, 우리의 구원이 베리칩의 수용여부로 결정해야 하는 정말 웃지 못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마치 글쓰기과 말한다면, 결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동안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완전히 뒤집고 마는 격이다. 이런 자기 모순적인 모습은 글의 통일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오류를 범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요한계시록도 사도 바울이 설파한 성경이 기록 목적을 따라 읽어야 하는 책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한마디로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을 통해 성도와 신앙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변화시키는 책이다. 삶의 참된 변화 위하여 성경이 쓰여진 것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말로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변화란 바벨론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그저 이단들의 강력한 도전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닌, 성도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케 하는 삶을 위한 메시지가 되게 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이 로마제국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듯이, 오늘도 성도들도 여전히 바벨론 제국의 도전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다. 비록 박해의 형태를 띠고 바벨론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지는 않지만, 일상적 제국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요한계시록의 의도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공동체를 대항문화적인 방식(counter-cultural way)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엎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대안적인 음성(alternative voice)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에 대하여 요한 실리에(Johan Cilliers)교수는 월터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경은 낯설지만 구원하는 세상을 제시하며,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일차원적인 세상을 관통하여 놀랍게 만들고 자극하여 새로운 전망을 드러내서 새 세상으로 인도하며 복음적인 대안을 받아들여 살아내도록 이전 것을 벗겨내어 새로운 세상을 제시한다.”¹

이러한 대안적인 세계를 제시하여 세워지는 교회를 대안적인 공동체(alternative community)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성경 중에서도 이러한 대항문화적인

삶의 목표를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는 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싶다. 본 호의 관심은 이러한 대항 문화적인 삶의 변화를 지향점을 어떤 그릇 혹은 형식에 담아서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형식

요한계시록의 저술방식을 조사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공동체를 설득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파악하게 될 때, 삶의 변화시키는 설교형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된다. 사도 요한이 위협과 유혹 속에 있었던 초대 교회 신앙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메시지를 어떤 그릇에 담았는지를 논할 때 주목할 것은 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사고, 즉 명제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² 가운데 후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제적 사고는 논리적, 분석적,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진리를 전달하는데 반해서, 내러티브적 사고는 직관적, 구체적, 상상적인 접근을 통하여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끝없이 등장하는 이미지, 상징, 환상, 비유, 묵시적 묘사들은 이 책이 얼마나 철저하게 내러티브적 사고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 준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이 이렇게 정사와 권세를 항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매료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를 추구하면서, 외관상으로 더 힘 있는 방식으로 보이는 명제적 진술을 통한 직접적 선포의 방식에 호소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상상력에 주의를 상기시키는 이유는 공동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리스 머독(Iris Murdoch)과 스탠리 하우어바스(Stanley Hauerwas)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것

¹ Johan H. Cilliers, *The Living Voice of the Gospel*, 이승진 역, 『설교심포니: 살아있는 복음의 음성』 (서울: CLC, 2014), P. 188.

처럼, 요한은 우리들이 단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대안적 세계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환상과 이상을 통하여 자신의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극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와 비유를 통해, 요한은 교회가 두려움과 영적 마비상태에서 깨어나 예수님의 스토리라는 빛 가운데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

대조의 방식으로 거짓됨의 폭로와 새로운 구축을

공동체로 하여금 대안적 세계를 다시 상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한편으로는 거짓된 세계를 폭로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계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요한은 정사와 권세의 거짓된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 실체를 규명하고 있다. 이 세상 제국의 실체가 다름 아닌 압제와 폭력, 그리고 죽음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큰 화면 안에 짐승과 바벨론의 모습을 허상의 실체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죽음의 세력에 대하여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3장 1-4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용의 하수인인 짐승이 등장한다. 요한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스케치하면서 참람된 존재임을 분명히 한다. 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단순히 현존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제국의 방식에 동조하거나 순응하지 말고 급진적인 저항을 통해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미 살펴본 17장에서 그 당시 제

국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을 단순히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제공해 주는 도성이기 보다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헤어 나올 수 없는 죽음의 늪지대로 빠뜨리는 음녀로 정체를 폭로하고 있다. 음녀라는 창기 메타포를 통하여 바벨론의 속성이 사람을 미혹하고 피이고 죽이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폭로는 교회 공동체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악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요한계시록 안에서 대안적 세계를 큰 화면 안에 그려주어 신앙 공동체에게 소망을 제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강력하게 세상 나라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만약 계시록이 세상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만을 독자들에게 상상하게 한다면, 반쪽짜리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계시록은 이 거짓되고 허상의 실체들로 가득 찬 세계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평화로운 통치의 세계를 대안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만든다. 이 세상 제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짐승과 바벨론의 실체와 반대되는 대안적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그림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일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정결함을 표지로 가지고 있는 어린양의 신부이다. 어린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성되어진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극적이고 대조적인 환상은 그시대의 교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싸움이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얻은 자로서의 싸움이라는 점을 더욱 더 확신하게 만든다. 이렇게 두 세계의 길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된 실체에 대한 순응과 충성의 길을 거절하고 참된 왕에게만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² 내러티브적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유진 피터슨, 『이 책을 먹으라』, 양혜원 역, (서울: IVP, 2006), 78-107을 보라.

³ 조엘 그린, P. 198.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저술 형식을 따라 읽기

요한계시록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저항하도록 인도했다는 점을 존중하게 될 때, 먼저는 단순한 문자 주의적 해석과 적용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설교는 계시록의 많은 이미지와 상징적인 장면들을 두 대조되는 세계의 실체와 두 대조되는 삶의 길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의 숫자 가운데 하나인 144,000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주 이상한 쪽으로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총수가 어느 이단들의 주장처럼 문자적으로 144,000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을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겠는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구원받은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주장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또 한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존중하게 될 때, 요한계시록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내용과 그 내용을 싸고 있는 형식에 동등한 무게를 두면서 읽어야 할 것이다. 토마스 롱의 표현처럼 내용과 형식, 두 가지는 구분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분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물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위한 장식 정도로 취급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읽거나 풍성히 읽어가지 못한 이유들 중에 하나이다. 토마스 롱(Thomas Long)은 형식을 간과하는 성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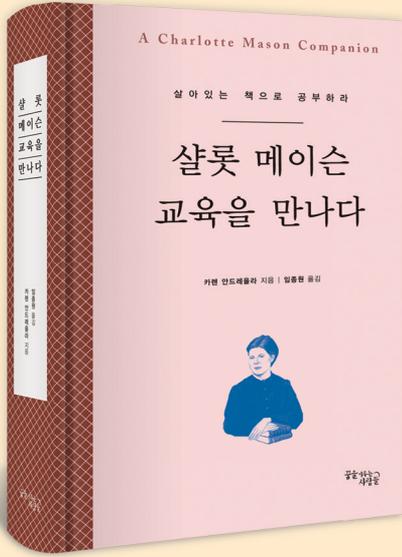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을 때에, 우리는 그 본문의 아이디어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본문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효력을 발견하고자 함에다가 우리의 뜻을 둔다. 그리고 본문들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작

용하여서 그 효과를 생성한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본문의 형식과 내용을 마치 두 개의 다른 분야라고 구분지어서 말할 수도 있다. 그러하지만, 만약 내용을 의미라는 유사어로 쓸 수 있다고 하면, 형식은 내용의 급소(a vital part)로 보아야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아마,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을 때에, 우리는 그 본문의 아이디어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본문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효력을 발견하고자 함에다가 우리의 뜻을 둔다. 그리고 본문들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서 그 효과를 생성한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본문의 형식과 내용을 마치 두 개의 다른 분야라고 구분지어서 말할 수도 있다. 그러하지만, 만약 내용을 의미라는 유사어로 쓸 수 있다고 하면, 형식은 내용의 급소(a vital part)로 보아야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아마,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내용의 형식” (“form of the content”)이라고 함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요한계시록 해석이 미궁에 빠져 있었던 원인은 요한계시록의 형식 혹은 장르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토마스 롱의 주장이 맞다면, 요한 계시록이 형식에 있어서 상징적인 면에 치중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서신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 지나친 명제적이고, 교리적이며, 일방적 수용을 강요하는 책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상상적이며 그리고 쌍방 참여를 제안하는 책이다. 마르바 دن(Marva Dawn)의 주장처럼, 요한계시록을 본문에 충실하게(literal) 읽어야지, 문자 그대로(literalistic)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⁴ 토마스 롱, 『성서의 문학 유형과 설교』, 박영미 옮김 (서울: 기독교 서회, 1999), P. 26.

배움이 즐거운 교육,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자녀교육, 샬롯 메이슨 교육법으로 풀다



살아 있는 책으로 공부하라

샬롯 메이슨 교육을 만나다

카렌 안드레올라 지음 | 576면 | 정가 30,000원

시험과 교과서에 갇혀버린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

샬롯 메이슨(Charlotte Maria Shaw Mason, 1842-1923)은 20세기 초 영국 교육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교육 사상가였다. 당시 영국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학교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공립학교는 많은 부모들의 교육적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아이들이 지적인 열망과 호기심에 응답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아니라, 시험 위주의 기능적인 지식들을 주입하는 교육은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 샬롯 메이슨은 학교교육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인위적인 교육기관인 학교를 넘어서 가정에서의 교육을 강조했다. 그녀의 교육사상 속에는 부모들을 향한 신뢰와 격려가 가득하며,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지혜들이 가득하다.

샬롯 메이슨의 교육 철학은 20세기 초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의 특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진리에 대한 믿음, 삶과 교육의 통합 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녀교육 방법이다. -카렌 안드레올라

저희 가정에서는 샬롯 메이슨의 교육 철학을 적용해서 아이들이 '살아있는 책'을 읽으며 스스로 학습하는 효과와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인경(한국라브리'Abri Korea 대표)

새들은 듣는 사람이 어른인지 아이인지 구분하여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롯 메이슨은 아이들이 풍부한 삶을 누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샬롯 메이슨의 이야기는 마치 아름다리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양한 개성의 아이들이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무 뿌리에 물을 주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수잔 웨퍼 맥콜리(영국 차일드트라이드교육센터 설립자)

WORLDVIEW NEWS

[이사회 / 정기총회]

2018년 제 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2017년도 사역을 마무리하며 신년비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동역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 (장소 동일)
- **일시** : 2018년 2월 20일 (화)
 - **이사회** : 오후 4시 30분
 - **총회** : 오후 6시

*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학문 23권 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신앙과 학문 23권(1~4호) 발행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투고는 상시이며, 온라인투고시스템인 <신앙과학문>(JAMS)홈페이지에서, 본 단체의 정회원에게 한하여 투고가 가능합니다.

※동역회 홈페이지와 신앙과학문 투고 홈페이지는 별도 사이트임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가입 필요)

〈신앙과학문 JAMS 홈페이지〉 <https://fs.jams.or.kr>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 **문의** : 02-3272-4967 (학회) / gihakyun@daum.net

〈신앙과학문 발행일정〉

2018년 3월 30일 / 2018년 6월 29일

2018년 9월 28일 / 2018년 12월 31일

[VIEW]

뱅크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한국지부

VIEW와 관련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성경 (VIEW 한국지부 행정실장)
- **이메일** : viewinkorea@gmail.com
- **전화** : 010-5154-4088

[사무국장 부임] 석종준 목사

석종준 목사님(전 서울대학교교회 목사)께서 사무국의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감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문소영(명지대 교수), 문준호((재)스마트IT 융합시스템연구단 연구부교수), 박영주(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1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성철 (명지대 교수), 이재희 (가천대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SAMSUNG



TV를 켜면 세상의 흐름이 보이는 리더의 공간이 되고



TV를 끄면 영감을 주는 아트 갤러리가 됩니다

공간의 프레임을 바꾸다

THE
FRAME

꺼져 있을 때 작품을 감상하는 아트모드 · 공간에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프레임 디자인